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JAN 21 1983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한국일보

토론토

No.1036–1037 1983년 1월21일(금) & 22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Friday & Saturday, January 21 & 22, 1983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신구회장단 이·취임식

29일 한인회총회

이사회통과된 회칙개정안 상정

한인회(회장 박인순) 정기총회가 오는 29일(토) 하오3시 한인회관(20 Mobile Dr.)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는 지난 12월 많은 논란끝에 인준된 새회장단의 취임및 현회장단의 이임과 아울러 업무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83년도 업무계획및 예산안 보고및 이사 선임위원 인준등 중요한 안건이 처리된다.

20일 함병섭 한인회 이사장은 "이번 총회에는 지난해 9월30일의 제3차 이사회에서 통과된 안건들이 상정되며 이 안건들은 앞으로 한인회의 향방을 결정지을 만큼 비중이 큰 것이므로 많은 회원들이 참가해서 권리를 행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사회를 통과, 이날 총회에 넘겨질 회칙개정안중에는 (1)이사수를 현재의 30명에서 60명으로 2배 증원, (2)회칙중 회장단의 "탄핵"이란 용어가 적합치 않으므로 이를 "불신임"으로 변경, (3)이사선임위원수를 현재 회장단 3명, 이사 3명등 6명에서 회장단 3명, 이사장단 3명, 이사 5명등 모두 11명으로 증원등이 포함된다.

함이사장은 지난 이사회가 이사증원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1)이사수의 증원으로 중요안건 의결시 신중을 기하고, (2)재정적인 면에서 연 $200인 이사의 회비를 배가, 한인회 운영비를 늘리고, (3)교민의 관심에서 점점 벗어나는 한인회의 이미지를 이사들을 통해 계몽, 한인회 행사에의 협조도를 증대시키자는데 목적이 있었다고말했다.

단독후보로 출마, "인준총회"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기는등 난관을 거쳐 당선확정된 '신임회장단 장순채 회장, 변의섭, 이기훈 부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정식취임을 거쳐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20일 장신임회장이 밝힌 새회장단의 사업계획중 새로운 기획으로는 (1)2월 중순중 모국의 주재상사원, 공관원, 언론인, 이사장단 및 각 단체장등을 한자리에 모아 신임회장단의 신년인사식 거행, (2)4월중 토론토의 약 2배명 한국전 참전용사 위안을 위한 대규모 친선의 밤을 힐튼호텔에서 개최, (3)제2회 청소년 예술제 개최등이다.

그밖에 캐라반, 경로잔치, 삼일·광복절 기념행사등은 예년과 같이 거행하며 송년파티는 사치성을 피해 주로 교민 연예인들을 동원할 예정이다.

◆아시아 7개국 순방을 끝내고 19일 오타와에 도착한 트루도 수상. 이번 여행에 동행하지 않은 아들 미쉘로부터 환영의 키스를 받는 동안 미쉘의 형 저스틴은 아빠의 여행선물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서 살짝 가방을 엿보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여행을 즐긴 트루도는 도대체 이번 외유의 실질 소득이 무엇인가고 묻는 기자에게 "그럼 내가 계약서에 싸인이라도 하고 올줄 알았느냐"고 반박했다. 목전의 수확은 없었지만 두번이나 연기됐던 그의 아시아순방을 드디어 끝냈다는데서 아시아에서의 캐나다의 신용추락은 모면하지 않았을까.

구여권 연말까지 유효

해외교포에 한해 연장

토론토총영사관에 의하면 82년 7월31일까지로 효력이 연장되었던 구여권이 해외교포에 한하여 83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한편 81년 10월1일 이전에 발급받은 모든 여권은 갱신하여야 한다.

여권 갱신의 대상은 영주권자, 주재상사원, 유학생, 취업, 장기체류허가자, 단기 학술연구, 일반초청방문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여권 갱신절차는 각 공관에 비치된 소정의 갱신발급신청서와 사진 5매 그리고 일정수수료를 제출하면 약 1~2주내에 새여권이 교부된다.

사진은 반드시 가로 5cm, 세로 5cm 규격에 한하고 천연색사진(배경없이 찍은 정면사진)이면 된다.

갱신에 필요한 수수료는 유학생 $8, 영주권자 $24, 기타일반여권 $48이다.

여비규정 수정검토

외화방출 막기위해

(서울10일=연합)정부는 금년 1월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른 외화 방출을 막기 위해 해외여행경비에 관한 규제를 수정할 방침이다.

정부소식통은 10일 해외여행자에게 허용되는 여행경비가 곧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는데 현행법에서는 10일간의 해외여행시 3천달러가 허용되며 10일이 넘을 경우 1일당 2백달러의 추가경비가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과잉 외화지출을 막기위해 1일당 2백달러의 추가 경비를 폐지하며 14세 이하에게 허용되던 1일당 1백달러의 추가 경비도 제한 연령을 12세로 낮추는 문제등은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들은 작년 1월~11월사이에 81년보다 1억2천2백만달러가 많은 5억8천1백만달러를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했다.

김대중씨 납치사건 전모 밝혀

"박대통령이 직접지령"

시체는 토막내 처리 계획

김경인씨 도착이 목숨살려

◆자신의 납치사건을 밝히는 김대중씨.

◆이후락 KCIA부장

◆박정희 대통령

◆납치현장지휘자 김재권 주일공사

(워싱톤)미국 워싱톤에 머물고 있는 김대중씨는 지난 14일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단독회견에서 지난 73년8월8일 자기가 도꾜에서 납치된 것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령했음을 관계자의 고백으로 알았다고 밝혔다.

동신문 16일자에 의하면 김씨는 이 회견에서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총지휘 아래 김치열 차장과 이철희 차장보가 한국내의 지휘·감독을 맡았으며, 김재권 주일공사가 일본내의 일을 담당했고 실제 납치작업은 윤진원 중앙정보부 공작제1단장이 맡았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또한 납치사건 현장인 도꾜 호텔·그랜드팔레스의 방에서 지문이 채취된 주일한국대사관의 김동운 1등서기관에 대해 "그는 호텔 복도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고 말해 동서기관이 현장에 있은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

김씨는 대낮에 호텔에서 납치당했다가 5일후인 13일밤 서울 자택으로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왔다.

김씨는 그후 2개월동안 자택연금됐다가 다른 사건으로 연행, 투옥되어 납치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으나 79년 10월26일 박대통령 피살후 국내에서 한때 정치활동이 자유로워진 「서울의 봄」을 맞았을 때 범행책임자들로부터 (1)납치사건은 박대통령을 비롯한 수명의 고관이 계획·지령했다. (2)실행은 KCIA가 맡았다는 고백을 들었다고 한다.

◆사건경위◆

김씨는 자기 납치사건 경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1)호텔·그랜드팔레스에 묵고 있던 양일동 민주통일당 당수(사망)가 같은 호텔의 김경인씨(당시 통일당 소속 국회의원·김대중씨의 친척)에게 "「간다」에 가서 고서적을 사다 달라"고 부탁, 의도적으로 그를 외출시켰다. (2)김대중씨는 그동안 양씨를 만나기 위해 동호텔로 갔다. (3)대기중인 범인들은 김씨를 호텔방에서 죽인후 토막낼 계획이었으나 김경인씨가 예정보다 빨리 돌아오자 계획을 변경, 김씨를 자동차로 납치해 바다에 던져 버리기로 했다. (4)양일동씨는 김씨와 만나는 시간을 사전에 주일 KCIA책임자인 김재권 공사에게 알려주었다.

김씨는 80년2월29일 정치적 복권이 된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나의 납치사건 관련자 전원을 오늘을 기해 용서하고, 이 이상 그 문제를 들먹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감동한 관계자들이 연달아 진상을 고백해 왔다한다.

납치 주모자 명단은 77년 6월 KCIA의 활동을 조사한 미하원 프레이저위원회에서 제4대 중정부장 김형욱씨가 박대통령을 제외한 명단 전체를 공개, 세상에 알려졌었다.

75년7월 일본사회당의 전영부 참의원 의원이 지하루트를 통해 입수, 발표한 범행관계자 리스트에도 박대통령·이후락 정보부장·김치열 차장의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름들이 올라있다. 일본의 수사당국도 비공식적으로는 김재권 공사이하 실행그룹 9명을 확인했다.

◆납치주모자 이미 알려져◆

이번 김씨 발언의 의미는 관계자들의 이름이 피해자의 입에서 직접 나온 것과, 사건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시의 대통령(박정희)의 이름을 지적한 점이다.

이것은 박대통령 피살후 이후락씨가 "나는 납치·살해계획에는 반대했으나 박대통령의 명령으로 마지못해 실행에 옮겼다. 나는 사건을 사전에 미국에 통보, 당신의 목숨을 구하게 했다"고 말하면서 김씨에게 사죄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 행동대 책임자인 윤진원 KCIA공작 제1단장은 본부에서 특파된 예비역 해병대령으로 납치선박의 지휘관이었다 한다. 이철희 KCIA 차장보는 그후 아내 장영자 여인과 함께 한국의 거액수표사기사건의 주범으로 작년8월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판결을 받았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오늘의 예금금리(1/7부터)

기 간	한인신용조합 신용조합	오투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9.5%		8%
90일	10%		8.5%
180일	10%	9.75%	8.5%
365일	10%	9.75%	8.5%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란콤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일요일 정상 영업 실시

(오전11시~오후8시까지)

● 국보쌀 50 pound $23.95
● 갈 비(Erie Meat) $1.39 per pound

한국식품점의 대명사 **삼복식품** 2437 FINCH AVE. W. ☎743-8270

※일요일 오시는 손님께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이대동창회 기금마련 음악회

5일(토) 세인트·로렌스·타운홀

이화여자대학교 동창회(회장 이주연)는 동창회 기금마련 음악회를 오는 2월5일 오후 8시 세인트·로렌스 센터·타운홀에서 갖는다.

이 음악회를 위해 수개월간 연습해온 출연진은 모두 이화여대동창들이며 이번에 모일 기금은 캐나다에서 활약을 기대할만한 여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쓸 예정이다. 이 기금은 또한 1886년에 설립된 한국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인 이화학당 설립 1백주년을 앞두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쓰여질 것이라고 동창회측은 밝혔다.

동창중 가장 선배인 김현순(56년 기악과졸)씨의 반주로 교가합창으로 시작될 이날 음악회는 홍현정씨의 피아노독주와 법대졸신인 김진화씨의 독창, 박성회, 고인숙씨의 피아노 2중주, 김영애, 장영자씨의 독창으로 1부가 진행된다.

휴식후 2부에서는 박성애, 공영옥씨의 독창, 이인선씨의 피아노 독주, 박윤심 ·김현정씨의 피아노연탄에 이어 이주연씨의 독창으로 전 순서가 끝난다.

연주곡목은 한국가곡을 비롯한 쉽게 즐길수 있는 애창곡에서부터 베토벤, 슈만, 슈베르트의 피아노곡들이다.

세인트·로렌스홀은 27 Front St, E,(East of Yonge×South of King)에 위치하고 있다.

이주연동창회 회장은 19일 "동창회가 그냥 모여서 잡담하는 모임이 아닌 보다 뜻있는 모임으로 발전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많은 동창가족과 교민들의 호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의 입장권은 $10씩, 구입처는 이주연(275-1029), 공영희(277-9350), 송복희(536-4250)이나 한국일보 Mrs,임 or Mr,최(533-2361)이다.

◆동창회 기금마련을 위한 음악회에 출연할 이대동창들. 왼쪽 위로부터 홍현정, 박윤심, 박성애, 이인선, 박성회, 김진화, 공영옥, 장영자, 이주연, 고인숙, 김영애 제씨.

토론토대학교 총장에 겔프대총장 허스터씨

겔프(Guelph)대학 총장인 도날드·휘스터씨가 20일 차기 토론토대학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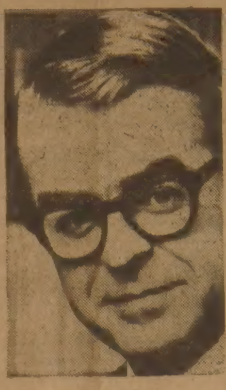
토론토대학은 연간 예산액이 4억달러나 되는 캐나다에서 제일 큰 대학이며, 가장 우수한 대학교중의 하나라는 평을 받고있다.

임기가 만료되는 제임스·햄 총장 후임으로 선출된 휘스터씨는 토론토대학 부총장을 지내고 75년부터 겔프대학 총장으로 봉직하고 있다.

48세의 휘스터씨는 겔프대학 총장으로 재임하는동안 신입생모집 캠페인에 성공을 거두었으며, 재임기간동안 웨스턴·온타리오대학과 합동하에 오타와 연방정부의 연구과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로비활동도 담당했었다.

정치경제학자인 휘스터씨는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고 학계에서도 존경받는 학자지만 아직 박사학위는 가지고 있지 않다.

총각인 그는 우표수집에 취미가 있고 토론토대학에서 학사학위를, 하바드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토론토대총장 휘스터씨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연세대 동문회 새 회장에 문영환씨

연세대 동문회는 지난 15일(토)의 그라나다식당에서 있은 신년파티겸 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부회장이었던 문영환(사업·영문 60년졸)씨, 부회장에 성수용(법과 60년졸)씨를 각각 선출했다.

지금까지 회장은 박남희(상과 59년졸)씨였다.

문회장은 앞으로 회장단이 구성되는대로 2년전부터 중단된 토론토 동문들간의 연·고전을 부활시키도록 노력하는등 새해 사업계획을 짜보겠다고 19일 말했다.

동문회 연락은 문영환(923-3846), 성수용(292-6430)으로 하면 된다.

〈수 상〉

사랑과 미움

손성호 (문협회원·런던 거주)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운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나니."

이 말은 불교의 경전인 법구경(法句經)에 나오는 말이다. 쉽게 풀이한다면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되 사랑에 빠지지 말고, 그곳에 집착하지도 말라는 뜻이다. 그럼으로해서 얻어지는 마음이야말로 참사랑이 되는 것이다. 뜻이야 그럴듯한데 실행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인 착한마음. 그것을 항상 지니고 또 생각하며 남에게 옮기려할때 오는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창조적인 무한의 사랑이 아닐까.

미움과 사랑에 농락당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 너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니까, 너는 구멍가게나 하는 상인이니까, 너는 공부를 많이 한 박사이니까, 그리고 너는 신학을 공부한 성직자니까, 하고 애써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박사학위를 가진 자는 전공한 그 분야에, 그리고 성직자는 성직자대로 저마다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함으로 모든 사람은 미움에서 해방되리라.

남을 존중할 줄 알고, 남의 인격을 도외시하지 않는 선한 마음이 싹틀때 과연 우리의 사회는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어쩌다 대하는 신문을 보면 짜증스럽다 못해 울화가 치밀때가 있다. 수양안된 탓이지니까. 그러나 지울 수 없는 것은 직책에 매어있는 어리석은 자 보다 스스로 인격도야를 꾀할 때 남으로부터 받는 존경은 스스로 과시하려는 억지보다 훨씬 값진 것일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 오는 실망과 고소와 미움은 그들 스스로에 의한 씨앗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어떤 형태로도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이롭지 못한 일이며, 미움을 주게된 사람에게는 누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스스로 그러한 일들을 자제함으로 골고루 위안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금세를 위한 가장 소중한 마음이리라.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사회야말로 죄의 싹을 키우는 온상이니까.

크라이슬러 가격인하

82년·83년 일부 모델

크라이슬러 캐나다회사는 생산단가의 하락으로 인해 82년형과 83년도형 일부 차종에 대해 최고 $3,000까지 가격을 싸게 내놓을 것이라고 18일 발표했다.

한편 캐나다 포드 자동차회사의 한 간부도 금년도 물가동향으로 인한 자동차 가격의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크라이슬러 대변인은 미국의 주도에 따라 캐나다에서 판매되고 있는 3가지 콘버티블 차종에 대해 6.5%이상 20%사이의 가격인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에 크라이슬러 캐나다가 미국의 가격인하폭을 따르게 되면 닷지(Dodge)400의 경우 20% 떨어진 $15,275에서 $12,220로 조정된다.

크라이슬러 르·배론(Le Baron)은 14% 인하된 가격 $15,825에서 $13,609로 떨어지게 된다.

이같은 가격인하 현상은 자동차 생산단가의 하락과 운반비용의 절약의 결과로 보인다.

포드와 제너럴모터즈(GM)의 경우는 가격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드·머드탕·콘버티블은 현재 $15,200, GM의 고급 뷰익·리베라는 $32,000에 소매되고 있다.

쌍용, 캐나다석탄 수입

BC주 합작투자광산에서

(서울20일＝연합)한국의 주식회사 쌍용은 금년말까지 캐나다에 있는 합작투자광산으로부터 5만톤의 무연탄을 처음으로 수입할 것이라고 업계 소식통이 20일 밝혔다.

쌍용은 캐나다의 메이비드석탄회사(David Coal Corp.)와 15대 85의 합작투자 비율로 브리티쉬·콜롬비아에 윌로·크릭 석탄광을 개발키 위해 총 불입자본 725만달러(미화)중 109만달러를 투자했다.

이 소식통에 의하면 윌로·크릭광산은 총 4천6백만톤의 석탄이 매장돼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따라 이들 2개회사는 1985년부터 매년 약 60만톤의 석탄을 채탄, 이중 쌍용이 84년부터 92년까지 매년 40만톤을 수입하게 된다.

상협 신년하례회

29일 로얄·욕호텔

한인상공인협회(회장 조병역)에서는 1월29일 저녁 로얄·욕 호텔 뷰도 룸에서 신년하례를 겸한 리셉션을 갖는다.

이날 리셉션에는 특별히 온타리오 상공인협회 회장인 휘이비씨등 각계 각층의 초청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상협은 그동안 협회 로고(Logo)를 현상공모, 송순배씨의 작품이 당선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상식도 이날 함께 가진다.

◆조병역 회장

초대의 말씀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귀교회와 가정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이정남, 임신철, 장용인 집사의 장로장립식을 거행하게 되었읍니다.

분주 다망하신중에도 오셔서 무거우면서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명에를 메는 세 분을 격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아 래 —

때 : 주후 1983년1월30일(주일) 오후2시

곳 : 캐나다장로교회 키치너·워터루 한인장로교회

388 OTTAWA ST. SOUTH

키치너 (519)579—0954,

(416)743—0816

1983년 1 월

키치너·워터루 한인장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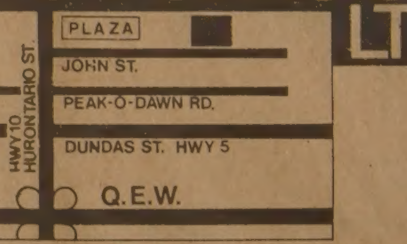
담임목사 정 동 석 드림.

온타리오 한인상공인협회 회원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완전한 차체수리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수리중 차 대여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LTD.



69 John Street, Missi

Bus.: 275•3131, 3133

R 457—1234

정 창 현

할렐루야 '83연합대부흥성회

주제: 생동하는 신앙

□ 강사 : 김중기목사

82년도 북미주 교역자 연합수련회 강사.
현재 한국인 신앙계에 불길을 일으키고 있는 능력의 종.

대 상	일 정	요일	시 간	장 소	
성 인	83.2.17~18~19	목금토	오후7시30분	펜티코스탈교회	300 Queen's Dr, Tor,
성 인	83.2.20	일	오후7시30분	한인장로교회	1183 Davenport Rd, Tor,
청소년	83.2.19	토	오후2시	새한장로교회	105 Wilson Ave, W, Tor,

강사약력 : 1. 연세대 및 동대학원 졸업(B.TH. TH.M)
2. 하바드대학및 보스톤대학 신학대학원 졸업(ST.M)
3. 맥코믹신학대학원및 노스웨스턴 대학원 졸업(PH.D)
4. 보스톤 한인교회및 미드웨스트장로교회, 호노룰루기독교회 다년간목회
5. 현재 미연합장로교회 목사로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

□ 주최 : 토론토장로연합회

□ 후원 : 교역자협의회, 교사연합회, 기독여성회연합회, 펜티코스탈교회, 한인합창단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에어·캐나다 요금 3분의2할인

토론토·뱅쿠버 왕복 $199

에어·캐나다회사는 금년봄, 전국적으로 약 60만좌석에 대한 세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 보통요금의 약 3분의 1에 해당된다.

좌석세일기간동안 $199로 토론토·뱅쿠버노선을 왕복할 수 있는데 이는 보통 정규요금 $529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에어·캐나다가 계획하고 있는 할인가격은 다음과 같다.

◉비행거리 800킬로미터(약 500마일)미만일 경우 왕복 $69

◉비행거리 800킬로이상 2,400키로(약 1,500마일)은 왕복 $129

◉비행거리 2,400키로이상은 왕복 $199이다.

에어캐나다는 좌석 세일을 연례적으로 실시해 왔다.

세일가격은 국내비행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다. 구입자는 14일이나 21일전에 반드시 예약해야 하며 돌아올 경우 목적지에서는 적어도 떠난후 첫주일이 지나야 된다.

금·은시세 상승

투자대상 인기증가

한때 폭락세를 보였던 금은등 귀금속값이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면서 투자대상으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해 6월까지 30여개월 동안 급락세를 보였던 금은값이 다시 계속 상승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6월 21일 온스당 $296.75(미화)까지 하락했던 금값이 최근 $490로 거래되었으며, 주로 산업용으로 쓰이는 은 역시 $4.90까지 폭락했다가 최근에는 $12로 뛰어올랐다.

아직은 80년1월의 "공포에 가까운" 가격에 이르기까지는 요원하나 (당시 금 $850, 은 $48.50) 다시금 투자인기를 급속도로 모으고 있다.

◆상승요인

그러면 금은값이 다시 상승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많은 요인이 있겠으나, 전문가들은 (1)이자율의 하락, (2)국제금융제도의 안정에 관한 관심의 고조, (3)인플레이션의 증가에 상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가디안·신탁회사의 카멜리 부사장은 "금은 즉시 현금화할 수 있고, 또 가치가 인플레에 민감하기 때문에 투자가들의 매력을 끈다"고 말하면서 금가격이 1온스에 $40하던 71년에는 금값상승률이 당시의 인플레 상승률을 능가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캐나다는 남아프리카와 소련 다음으로 세계 제3위의 금 생산국으로 금괴, 코인, 채권이나 금채광회사의 주식매입등 금에대한 다방면의 투자기회가 있다.

은이 지난 120년간 시장조작이 많았던 것과 소수투자가들의 수중에서만 있었던 점에 비해 금은 정부나 은행, 신탁회사, 그리고 개인에 골고루 분배되어있다.

일반적으로 금과 은의 투자는 미국통화로 환산되기 때문에 캐나디언 투자가에게는 이보다 약간의 액수가 더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반 대중이 금은등 귀금속을 투자하기 전에 수수료, 금괴 보관료, 판매거래세등을 잘 알아보고 사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조심스러운 장기투자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디안·트러스트사와 디크·메레라사는 금, 또는 은(덩어리나 혹은 코인)의 매입및 판매에 수수료를 부가하지 않으나 임페리얼·커머스은행이나 노바·스코시아은행은 5천달러까지에 대해서는 수수료로 0.25%를 부과하고, 그 이상은 0.125%를 부과한다.

또한 고객은 덩어리 구입에 따른 "바·차지(bar charge)"를 물어야 하는데 이는 온스당으로 계산되며, 덩어리가 크면 온스당 가격은 하락한다. 가디안·트러스트사는 1온스의 금덩어리(bar)에 바·차지를 $3.50 부과하는데 10온스의 덩어리는 온스당 $1.50로 감해준다.

◆금·은등 귀금속의 가격 회복과 함께 금괴가 투자대상으로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金聖鍾작

지경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53>

혼적 ④

10년만에 나타난 국제殺人청부업자 X

반시간도 못돼 인터폴 요원 두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지문을 보고나서 그것이 틀림없는 X의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그리고 살인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야기를 듣고난 인터폴측도 이번 살인사건이 X의 짓이라는데 거의 믿어의심치 않는 것 같았다.

「그가 도오꾜에 나타났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를 10년전에 놓친 이래 지금까지 그림자도 보지 못했읍니다. 그가 죽었던가 아니면 완전히 손을 떼고 숨어버렸던가 둘중의 하나일거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런데 10년만에 도오꾜에서 지문이 나타나다니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인데요.」

인터폴 도오꾜 지부 책임자는 머리를 흔들며 사뭇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인가요?」

「대단하고 말고요. 일본은 아직 그에게 당해보지 않아서 실감이 안 나겠지만…」

「우리도 당했읍니다. 여자가 죽지 않았읍니까?」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다지 쇼킹한 것이 아니군요.」

「쇼킹하지 않다니요?」

「그의 이력으로 볼때는 너무 사소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리고 좀 예외적인 것이라고 볼수 있읍니다. 그는 거물들만 상대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소한 인물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읍니다. 더구나 여자에게는 절코 손을 대는 법이 없었지요. 그가 거물들만 상대했기 때문에 각국의 거물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했지요. 그것을 우리는 X콤플렉스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세계의 거물들은 X콤플렉스에 사로 잡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의 본명은 무엇인가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그는 신비의 인물입니다. 본명도 국적도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나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를 찾기가 더욱 어려운 겁니다.」

「그를 여기서 체포하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문 하나만 가지고는 곤란하지요.」

「그런데 유감이지만 자료란게 보잘 것 없읍니다. 10여년 전에 입수한 사진 하나와 지문이 전부입니다. 그 사진은 여기에도 보내드렸을텐데요.」

「네, 우리도 그 사진은 보관하고 있읍니다. 바로 이거 말이지요?」

그것은 어느 파티장에서 찍은모습이었다. 비교적 깨끗이 나와있는데, 그는 나비 넥타이를 달고 한손에는 술잔을 든채 미소짓고 있었다.

「아주 미남이에요.」

「대단한 미남이죠. 이건 남아프리카에서우연히 찍힌 겁니다. 그곳 국방관계자들과 유럽의 무기업자들이 참석한 파티에서 우연히 찍은 전데, 바로 그 파티장에서 무기업자가 살해되는 바람에 이게 드러나게 된거지요. 그 무기업자는 세계무기시장을주름잡는 거물이었는데 그 파티에서 만취가 되어 화장실에 갔다가 살해되었지요. 죽은지 한 시간이나 지나서야 화장실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이마에 총을 맞고 죽었읍니다. 아마 소음권총을 맞은 모양이에요.」

朴男 그림

화잘내는 사람 심장병 잘 걸려

"화를 잘내고, 공격적인 사람은 화내지 않는 사람보다 5배나 심장병 발작에 걸리기 쉽다"는 학설이 나왔다.

미국 듀크대학의 정신과의사 레드포드·B·윌리엄박사는 지난 12일 미국 심장학회에서 25년간에 걸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시카고지구에 사는 1천9백명의 중년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심리테스트에 나타난 "화를 잘내는 지수"와 심장병의 위험률및 전체 사망률과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윌리엄 박사에 따르면 화를 잘내는 부류의 특징은 야심적이고, 성급하고, 초조하여 곧잘 격분한다고 한다.

그는 화내기 쉬운 사람이 왜 심장병에 잘 걸리는지 원인이 뚜렷하지는 않으나, 다른 조사에서 분노의 감정이나 스트레스가 혈압을 높인다는 것과 그 자극에 의해 혈액 속에 있는 일종의 홀몬이 여느때보다 증가한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말처」유행

주중은 남편과 별거

(워싱턴)여성의 직장요직 진출이 활발한 워싱턴에서는 주중에는 남편과 따로 살고, 주말만 합류하는 유부녀가 늘고 있다.

데라웨어 주지사 부인 엘리제·듀폰은 주의 퍼스트·레이디인 동시에 여류변호사로 항상 3대의 녹음기를 가동시키고, 직원과 사동등의 지시에 여념이 없어 주말에만 가정으로 돌아간다.

백악관 인사국장 헬렌·폰·담 여사도 뉴저지주에서 일하는 남편한테로 매주 금요일밤 돌아갔다가 월요일 새벽 4시45분에 일어나 백악관으로 출근한다.

또 재무성 출납국장인 안젤라·브캐넌 여사는 남편 윌리암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에서 개업하고 있으므로 매달 두번 대륙을 횡단, 남편과 합류한다. 1월중 아기를 낳을 예정이므로 출산후에는 남편이 주말마다 워싱턴으로 날아오게 된다.(AP)

한국·캐나다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토론토·한국일보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 합니다
각종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적은비용으로 알찬효과를 보는 한국안내광고란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품질보장 · 신용본위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OUT OF THIS WORLD
CARPET CLEARANCE SALE·
SAVE UP TO 70%
FREE INSTALLATION (무료 설치)
FREE UNDERPAD (스폰지 무료)
FREE DELIVERY (무료 배달)
FOR FREE SHOP-AT-HOME SERVICE CALL:
757-2811
LAWRENCE KENNEDY
STEWARTS CARPET LAND
1200 KENNEDY ROAD
SCARBOROUGH, ONTARIO

모교창립100주년
이화여대동창회
기금마련 음악회
ㅁ일시 : 1983년2월5일(토) 오후8시
ㅁ장소 : ST. LAWRENCE CENTER
TOWN HALL
27 FRONT ST. EAST
ㅁ출연자 : 피아노 김현순 이인선
박성회 고인숙
박윤심 홍현정
성 악 장영자 이주연
공영옥 김진화
박성애 김영애
ㅁ내 용 : 한국가곡및 애창곡
피아노독주및 이중주등
ㅁ티켓 구입처 : 이주연 275—1029
공영희 277—9350
송복희 536—4250
ㅁ티켓 : 10불
이대 동창회

전 세계로 배달하는
Lotus Florist and Gifts
FTD
UNITED
ㅁ고급 품질의 Plant 취급.
ㅁ웨딩전문.
ㅁ각국, 각처에 주문 배달함.
◉메트로 전역 : 1일 2회.
◉영국및 유럽 : 3일전
◉한국및 기타 : 1주일전
◉카나다및 미국 : 주문당일 배달
792 Bathurst St.
Bathurst & Bloor Toronto M5R 3G1
533-3884 | Sue Kim 533-0705
(R)749—8399

政治 被규제자 年內 1단계 解除

"先進조국創造 任期內 꼭 실현"

나머지 解禁대상도 단계적조치 검토

南北최고책임자會談 촉구

經濟의 安定的 성장에 力點

全斗煥대통령은 18일 올해안에 정치활동 被규제자에 대한 제1단계 解禁조치를 취하겠으며 「先進조국의 창조」, 지속적인 통일노력과 제2의 도약을 위한 경제의 안정적성장을 이룩하는데 역점을 두어 새해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이날 하오2시30분 제1백15회 임시국회에 참석, 올해 國政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치활동 被규제자중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解禁조치를 계속 검토해나갈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 새해國政연설

全대통령은 이날 解禁문제에 관해 『현재의 상황을볼때 당초에 의도한 정치풍토의 刷新과 道義정치의구현이 국민적 興望속에서 그 기틀을 다져가고 있고 또 당사자들의 自律분위기도어느정도 정착돼 가고 있다』고 전제, 『이에따라 정치활동금지에 대한 해제조치를 이제는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하면서, 우선 올해안에 제1단계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것임을 밝혀둔다』고말했다.

全대통령은 이같은 조치의 진정한 뜻은 舊시대의 再生에 있는것이 아니라 舊시대의 청산에 있다고 역설하면서 『이와 관련해 강조하고싶은것은 국민적和合과 總參與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성취될수있는것은 아니며 온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할때 더욱 튼튼하고 보람찬 結實을 거둘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全斗煥대통령이 국회본회의에서 國政연설을통해 새해 施政의 靑寫眞을밝히고있다.

1시간25분에 걸쳐 國政전반에 관해 施政방침을 밝힌 全대통령은 또 『앞서가는 다른 민족들에 비해 조금도 뒤질이 없는 선진조국을 우리는 기어이 이룩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강조하고 『「先進조국의 창조」, 「그것은우리의 국민적 興望과 시대적 召命으로서 본인은 내任期중 身命을바쳐 기필코 이룩하고야 말것」이라고다짐했다.

全대통령은 80년이 安定에 대한 각성, 81년은 체제정비, 82년은 軌道진입의 해라고정의하면서 『83년은 바로 선진조국의 창조를위한 본격前進의 해가돼야하겠다』고밝히고 『「선진조국」의 가능성을확신케하는 우리국민의 위대성과 국민적 底力은 이미 증명됐으며, 문제는 그위대성과 底力을 어떻게 분산시킴이없이 단단하게 결집하는가에달려있는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문제에 대해 全대통령은 「南北韓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北韓측에 촉구하고 이 회담이 실현될경우 ▲南北韓간의 긴장완화와 전쟁재발 방지를위한 효과적인 조치강구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北韓측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함으로써 통일문제해결의 토대마련 ▲국제무대에서 南北韓간의 과당경쟁으로 빚어지고있는 민족力量의낭비방지를 위한 실천적조치강구 ▲평화통일촉진을 위한 국제적인 여건조성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는 계기마련등 4개항을 협의할것을 제시했다.

全대통령은 특히「통일방안을 둘러싸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문제해결에 보탬이 되는것이아니라 오히려 상호간의긴장과 대립을 조장하는 결과만을가져오게될것」이라고 지적, 『南北韓당국의 최고책임자가만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있을수없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정치문제에 언급, 국민을 주인으로하는 정치, 봉사정치, 자기領域을 착실히 다져가는 정치, 책임정치, 공개정치와 淸廉정치등을 강조하면서 『우리역사의 오래된 병폐중의 하나이며 近代史에서 민족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해왔던 정치萬能主義에 종지부를 찍을때가 바로지금』이라고 역설했다.

全대통령은 『이러한 참다운 政治像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는데 온힘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강조하고 「黑白논리의 극복을 통한 대화의 정치, 그리고 人氣위주와 黨利黨略의 차원을 떠나 시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책임정치를 확립하기위한 모두의 실천적 노력이 竝行될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토착화는 진정으로 이룩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경제사회개발문제와관련 ▲경제의안정기반정착 ▲국제경쟁력강화 ▲각종경쟁촉진시책의발전 ▲농어촌건설기반의 공고화 ▲중소기업육성등을위한 제반시책강구 ▲국민복지향상을위한 주택, 보건의료, 의료보장과 원호시혜확대 ▲勞使협조의내실화 ▲균형있는 지역개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등에 역점을 두어 시책을 펴나가겠다고밝혔다.

時期에적절한 판단

解禁인사 門戶개방

民正 野圈

全斗煥대통령이 18일하오 국회에서 새해國政연설을 통해 올해안에 정치被규제자에 대한 1단계解禁조치를 취하고 계속하여 단계적으로검토하겠다고 밝힘에따라 주요정당들은 解禁에따른 다각적인 대책의수립과 검토에 착수했다.

民正黨은 被규제자의 解禁은 시기적으로 적절한것으로 판단하면서도 解禁이 현재의 정치상황에 變革을 가져올 내용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있다.

이와함께 民正黨은 解禁후에도 國政운영태도에는 변화가 있을수없으며 설혹 解禁으로 野圈의 판도에 변화되더라도 이것이 현실정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것으로 보고있다고 한관계자가밝혔다.

民韓黨은 이날 긴급확대간부회의에서 解禁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는데 특히 解禁되는 舊野黨인사에 대해 門戶를 개방한다는 원칙을 세운것으로 알려졌으며 22일에는 柳致松총재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문제에 대한 黨의 구체적입장을 밝힐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당도 解禁이 바로 黨勢확장을 할수있는기회로 판단, 24일에 있을 당무회의에서 이문제에대한 黨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데 舊與圈인사들의 영입을위한 여러가지방안이 강구될것으로 보인다.

政策諮問委 폐지

정부는 중앙과 지방기관에 획일적으로 설치, 운영돼온 정책자문위원회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총리실은19일 총리실 정책자문위원회 다과회를갖고 해체식을갖기로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각기관별로 기관장의재량에따라 필요한사항에한해 적정규모의 자문위원을두고운영토록했다.

和合앞당기는 일대決斷

정치被規制者 年內 1단계解禁의 배경과 의의

새時代 政治질서 定着에 自信

政局에도 변화… 政界再編예상

全斗煥대통령이 18일 國政연설에서 정치활동 被規制者에 대해 올해안에 1단계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조치를 계속 검토해나가겠다고 천명한것은 국민大和合의 차원에서 크게 환영받고있다.

全대통령의 이러한 결단은 작년말 舊시대사건 사건구속자들에 대한 大赦免과 脈絡을 같이하는것으로 이를계기로 관용과 和合의 힘찬 기운이 사회전반에 퍼져 새로운 정치풍토조성은 물론 나아가 先進조국의 창조에 밑거름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같은 결단은 제5공화국 出帆이후 민족화합과 自律개방을 꾸준히 추구해온 全대통령 特有의 統治스타일의 일면으로서 특히나 정치안정이 국가발전의 절대적조건이되는 오늘의 국가현실을 감안할때 이번解禁이 정치안정과 새정치전개에 전혀부담이 될수없다고 단정하기어려운만큼 全대통령의 과단성은 높이평가되고있다.

또 그동안 상당수의 被규제자들이 改悛의 情을 갖고 근신·自肅함으로써 정치적안정이 상당수준에까지 이뤄졌기때문에 解禁조치가 가능해졌다는 분석도나오고있다.

1단계解禁이法定時限보다 5년간이나 앞당겨서 구체화되게된것은 5공화국출범3차연도를맞아 和合과 청결,그리고 책임정치를 根幹으로하는 새시대정치풍토가크게정착되었고 따라서 단계적으로라도 解禁을 고려하는것이 順理라는 정치적판단이 세워졌기때문이라는 해석도있다.

이밖에 80년11월 被규제자명단을 발표하면서 改悛의情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解禁을 배려하겠다고 밝힌바있고 그동안 수차례 적절한 시기에 解禁가능성의 뜻을 표명한바있었기 때문에 全대통령은 합당한 시기에 법에 명시된 固有權限의 행사를 표시했다고 보여진다.

아직은 解禁시기와대상 규모등에 대해 알려지지않고있지만 앞으로이문제는 국민의 최대관심사가 될게틀림없다.

당초 정부는 10·26이후의 혼란을 수습하고 「권한있는 곳에 책임이있다」는 大前提아래 不正과 非理로 얼룩졌던「舊정치」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의지를 보여주기위해 일부 舊정치인에 대해 「規制」라는 철퇴를 가했다. 이는 5공화국의 開幕과 함께 새로운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철저한 청리가 先行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밑바탕을 이루고 있었던것이며 한시대가 불행한 終焉을 告할때 그시대의 主役을 담당한 사람들은 개개인의 책임은 물론 자기시대의 결과에 대해 응분의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정신과도 相通하는 것이다.

이같은 논리는 5공화국에 참여하고있는 정치인에게도 결코 例外가될수없다」것이다.

이같은 정신에 따라 정부는 80년11월5일 정치풍토쇄신법을 공포한 직후 정치풍토刷新委를 발족시켜 舊시대정치에 책임이 있는 7천66명의 대상자중에서 8백35명을 정치활동 不適格者로판정 공고했다.

이때 不適格판정을 받은사람중에는 10代의원 2백10명과 舊정당의 주요간부들이모두 망라되어있었고 刷新委는 판정된 사람들중 5백86명으로부터 再審신청을 받아 심사한결과 같은해 11월25일 2백68명에게만 適格판정을 내렸다.

예상보다 폭이 넓었던 이같은「政治救濟」는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免責보다 새시대의 同參의식을 넓히는포용과 관용의 의미가 많은것으로 풀이됐으며 또 깨끗한 정치와 경험의 활용을 기대하는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것이었다.

그러나 舊政治의 主役을맡았던 舊정당의 고위당직자와 국회간부는 解禁에서거의제외됐는데 이는 정치非理의再發방지및 책임정치의 구현을 실천과 행동으로 옮기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解禁人士를 類型別로 분류해보면 10代의원 1백1명, 舊정당간부 1백62명, 기타 5명으로 10代의원과 정당간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것은 당초 이들을 포괄적으로 묶었기 때문이며 保安처분대상자들은 대부분 정치에 대한 「許可」를 받지 못했다.

지금까지 解禁되지 못한인사중에는 그동안 10명이 사망, 5백57명이 아직도「被規制」란 정치밖의 울타리에발이 묶여있다.

앞으로있을 1단계解禁조치는 조용한가운데 政局에새로운변화를 가져올것같다.특히 변화는 어느보다 야당쪽에 더욱민감하게 작용할것같다. 물론 解禁이된다고해서 하루아침에 政局구조나 版圖가 달라지지는 않을것이나 새로운 變數로서 政界再編의요인이될가능성이크다. 당초 정치규제가 舊시대의 殘滓가새시대로 移行, 溫存되어서는 안된다는 의지에서 단행됐던만큼 이번解禁선별은 결코舊시대의 再生 再現이 아닌 新시대의 전개출발이라는 점을같이 생각해야할것같다.

대체로 政局변화는 현재의 정치질서속에 解禁인사들이 同參受容하는 과정에서 빚어질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舊黨도 이들을 迎入, 受容하기 위한 준비를서두르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解禁인사중에는 다시 정치에 참여하거나 또는 舊시대혼란에 대한책임을지고 조용히 은퇴하여 명예회복만으로 만족하는인사도 있을것이다.

만약 다시 정치에 투신하게될 일부인사들이 정부의이같은 관용조치를 오해,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만큼 민주주의 토착화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것이고,마땅히 그에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것이라는 한정부소식통의 경고를 각별히 유의해야할것같다.

따라서 이번 解禁천명은 정치쇄신과 和合차원에서 이뤄졌다는점을감안, 대상자들의 앞으로의 행동과 자세는정치발전과 국민적 화합에 기여될것이라는점을 인식해야 할것으로전망된다.【李以春기자】

社會漫評

2개의 봄이 함께 오려나…

地平線

광복후 오늘날까지 국제결혼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여성들이 외국인, 특히 주한미군인에 출가하는 것으로 일반적인통념이 굳었다. 근자의 국제결혼은 연간 4천건이 넘는데 그 90%가 우리여성이 외국인에게 출가한경우이고 또 그 가운데 83%는 미국인을 남편으로 선택한것으로 되어있다.▼국제결혼대상에 대해선 당사자 아닌국외자가 왈가왈부할 성질의일은 물론 아니다.그간 결혼을한 가운데는 미국인말고 공산국가 체코나 쿠바국적의신랑을 선택했던 사례가있는가하면 회교국가인 바레인·이란·터키·이집트·인도등의 사람과도 통혼한 일도 있어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을 새삼 실감케 한다.▼한데 간절한 사람의 충동으로 맺어졌던 그 국제결혼이 상당수의 경우 파경으로 끝나며 특히 기지촌 주변에서 이루어진 경우의 80%가 이혼으로 종말을 짓고 있다는 통계는 가슴아픈 일이다. 그러면서도 국제결혼은 앞에 말한것처럼 연간 4천쌍을못도는 실정이다.▼이같이 국제간의 혼인이 증가되는 추세속에서 이번에는 취업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해외에 머물고 있는 우리 적령기의 총각 처녀와 국내의 규수나 낭재를 짝지어주기 위한 국제결혼상담창구가 새로 생긴다는 소식이다. 노동부가 중심이되어 문교부와 보사부의 도움을 얻어 정부가 매작구실을 하자는 것이다.▼세계 98개국에 퍼진 해외교포및장기체류근로자가 약 1백60만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혼기를 맞은 연령층이 1만3천7백명이 된다니 정부로서도 「국경이 없는사랑」이나 하늘이 정해주는「천정배필」에만 의존하라고 모른체 할수는 없게된 셈이다. 당사자아니라도 백년의 가약을 맺어주고자하는 이같은 배려에대해서 긍정도하고 또 그추이에 주목도 하게된다.▼이미 우리는 지금으로 부터 약 80년전 하와이나 북간도로 갔던 노총각들과 국내처녀들사이의 이른바「사진결혼」에 얽혔던 온갖 눈물겨운 인간극을 잘 알고있다. 정부의 국제결혼상담창구가 그무렵의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어버이의 심정으로 다루어지고,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통념상의 국제결혼문제에도 파국을 예방할수 있는 따뜻한 배려가 함께 따라 주었으면 한다.

한국일보
우리의健康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저 축
교육 · 은퇴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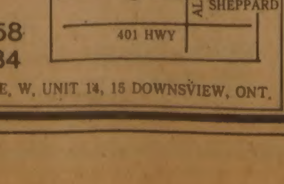
▲ 자동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Indoor 골프장

더 많은 골퍼가 참여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Member Fee를 인하했읍니다.

하루입장료 5불(무제한 연습할 수 있음)
컴퓨터 사용포함
Full Member Fee : 1983년 4월까지
50불로 인하
※초보자를 위해 매주 수요일 무료 레슨

신년 영업시간표
월～금 : 12시부터 저녁 9시
토 : 오전11시～오후 6시
일 : 오후 1시～오후 6시



638-4658
298-3584
1230 SHEPPARD AVE, W, UNIT 14, 15 DOWNSVIEW, ONT.

토론토 동우회 공고

제6대 회장선거

본회 제6대회장선거를 회칙 제24조에 의거 공고함.

1. 등록기간 : 1983년2월5일(토) 오후 5시까지.
2. 등록장소 : 290 Eglington Ave. W. Toronto Ont. M4R 1B2 (담당 : 호민식 481－2172)
3. 등록자격 : 정회원으로 회칙제25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4. 등록서류 : 회칙제24조및 본문단서에 의함.

•참고: 선거에 관한 문의는 선관위로 문의 요망.

선거관리위원 장수완 677-6506 함태호 791-2276 이영시 883-4734 호민식 481-2172 이희식 669-6746

선거관리위원회

제6차 정기총회

본회 제6차(83년도) 정기총회를 회칙 제9조1항및 3항에 의거 공고함.

1. 일 시 : 1983년2월12일(토) 오후 7 시
2. 장 소 : 한인회관 강당 20 Mobile Dr. (at Eglinton E.)
3. 안 건 : ①82년도 사업보고 ②82년도 감사보고 ③82년도 결산보고 ④제 6 대 회장선거 ⑤이사선임위원선출 ⑥기타

1983년 1월 일

토론토동우회

한인컴퓨터협회

세미나안내

제25회 한인컴퓨터협회 정기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COSKA 회원및 관심있으신 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1983년2월3일(목) 오후6시30분
제 목 : Application Development Producpivipy
강 사 : 정소량(IBM Canada)
장 소 : Ontario 교육회관 252 Bloor St. W.
연락처 : 669－5232 533－2742

自信感넘친 「제2의 跳躍」

——主體性있는 「和合의 政治」로

全대통령國政연설 緊急對談

◇朴東熙 (建國大교수·法博)
◇曺淳煥 (本社論說委員)
▲18일하오 本社會議室서

國會重視, 정치活性化와 깊은聯關

「세계속의 한국」으로 치닫는 能動的인 대처

富國政策서 富民政策으로 轉換을

全斗煥대통령이 18일 국회에서 밝힌 國政연설은 先進化를 향한 새국가목표, 2단계 政治解禁, 경제의 지속적 안정과 성장, 그리고 統一문제에 새로운 이니셔티브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있다.

朴東熙교수(建國大)와본사 曺淳煥논설위원의 緊急對談을 통해 國政연설의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방향등을 분석했다.

▲曺淳煥위원=全斗煥대통령의 國政연설은 작년과는 달리 충격적인 내용을 담았기보다는 안정된 기조위에서 조국발전을 위해 계속 전진하자는 내용인 것같습니다. 全대통령이 國政을 맡은지 3년째를 맞아 이제 자신감을 갖고 국민의 저력과 가능성 위대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데 역점을 둔것으로 보입니다. 연설내용중「先進祖國의 창조」란 캐치프레이즈는 단순히 경제先進化가 아닌 모든 분야에 걸친 先進化를 다짐한 진취적인 기상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朴東熙교수=우선 형식면에서본다면 全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했읍니다. 이것은 정치활성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자세라고 봅니다. 국회는 정치의 중심이며 민주국가는 세계어디에서나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정의 기본방향을 밝히고 있지요. 과거엔 대통령이 국회를기피해 정치不在현상이 빚어졌었는데 이런점에서 全대통령은 정치를 국회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생각으로 풀이됩니다.

국가정책이 항상 새롭고국민들이 깜짝놀랄만한 것이라면 이것은 일관성의 결여라고 할수있읍니다.

이번 연설의경우 조용하면서도 壯重하고 묵직한國政의 靑寫眞을 담았다고 볼수있읍니다. 앞서 지적하신것처럼 先進조국의 창조라는 표현은 과거엔 엄두도 내지못했던자신감의 발로라 할수있지요.

그 자신감의 발로는 정치규제자 해금조치에서도 나타나고 있읍니다. 여하튼 이번 국정연설은 外形的인 화려함을 피하고 조용하고 실질적인 前進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하겠읍니다.

▲曺위원=全대통령이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함으로써 과거 통치자들과는 다른 스타일을 보이고 있읍니다. 미국에서도 4년임기의 대통령이 집권3년째부터는 언론으로부터 신랄한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데 금년이 바로 그해에 해당됩니다.그런면에서 全대통령정치는 이제 3년째에 접어들었는데 연설내용이 자신감으로 가득찬 인상을주는군요국민화합과 同參을강조했는데 대통령의 국회중시 태도는 정치활성화와 연관성이 있지않는가 생각합니다.

▲朴교수=국회重視는 정치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있읍니다. 全대통령은 정치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명확히 지적했읍니다. 선동과 인기위주의 정치, 정치인을 위한정치, 남의영역을 넘보는 정치등을 경계하면서 解禁조치등으로 정치발전과 활성화를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과거와같은 非理는 인정치않겠다는 단호한결의가 뚜렷이 나타나있읍니다. 언제 1단계 해금조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풀려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행동을 自制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줄 의무가 있읍니다. 그들의 행동여하에따라 2단계, 3단계조치가 빨라질수도늦어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내 規制란 放從이 지나칠때나오는 것이긴하지만 규제가 너무 강하면 이것 역시 바람직한것은 못됩니다. 兩極을 달리지 않는 정치야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현상이 아니겠읍니까.

▲曺위원=全대통령은 정치풍토의쇄신과 道義정치의 구현을 위해 연내에 정치규제자들을 1단계로 풀겠다고 밝힘으로써 정치解氷을 예고했다고 생각합니다.규제자가 풀리면 정계개편가능성도 있지 않겠읍니까.

▲朴교수=규제해제당사자는 물론 국민들도 환영하는 조치임에 틀림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보아 두어야할점은 全대통령이 정치피규제자해제의사를 밝히면서 기본지침으로 규제해제가 舊時代의 再生을 의미하는것이아니고 舊時代의 淸算에있다는점을 강조한부분입니다. 3년에걸쳐 제5공화국이 걸어온 정치의길을 그대로해금자들도 그대로 걸어나가야함을 의미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용하고 생산적인 정치를하기위해 정부가 받아들여야할점은 贊反에대한 論議가 생산적인 것일때는 적정할것이아니라 오히려 정부와 국민에게 이익이된는것으로 생각해야한다는점입니다.

「舊時代의 청산」이란 인기위주의 정치인행태, 가식적인 행위, 국민을 기만하기위한 술책등 이런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하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舊時代의 정치인상 때문에 정치를 믿지 않으려는 풍토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曺위원=국제적인 측면에서보면 최근 韓半島주변에는 여러가지변화가 있었읍니다. 소련에선 안드로포프가 새지도자로 등장했고 일본에선 나까소네(中曽根)새수상이 탄생했으며 또 中蘇간에는 잘 진행되고 있는것 같지는 않지만 여하튼 화해무드가 무르익고 있읍니다.

우리 외교는 세계속의 한국에서 봐야합니다. 세계적인 불경기속에 선진국들이 불황의 늪을 헤어나지 못할때 우리는 작년 6%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읍니다. 세계경기가 부양되면 제2의 도약을 맞이할 안정기반이 마련된것이지요. 금년에는 국내정치뿐만 아니라 외교면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적극자세로 나가야 겠읍니다. 금년 2월에 슐츠美국무장관이 한국과 아시아 몇개국을 방문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대한 재정립이라고 볼수있으며 이런 국제적인 흐름속에서 全대통령이「세계속의 한국」「先進祖國창조」를 강조한것은 우리가 국제정치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자는 의미가담겨 있다고 봅니다.

▲朴교수=全대통령은 외교면에서 對美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후 對日관계에대해서도 과거 어느때보다 관계개선의필요성을 강조했읍니다. 오늘밝힌 정치규제자 解禁조치라든가 작년말 金大中씨와 同사건 관련자를 석방한것은 對美對日관계에 있어 좋은 기반을 다진 것이라고 봅니다.외교란 국내정치를 무시할수없기때문입니다.

▲曺위원=朴교수께서 지적한 것처럼 정부가 작년말에 취한 金大中씨에대한 신병치료를위한 미국여행허가는 국내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안정을 되찾았다는 것을 과시하는 계기가 됐읍니다.

이에앞서 외국에서는 이미 우리나라가 안정기조를 이뤘다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작년가을 소련 TASS통신기자 3명에뒤이어 소련문화성 高官이 訪韓한것은 全대통령의정치가 안정되었다는 국제적평가로 풀이해야 합니다.

▲朴교수=80년이 제5공화국 출범의첫해는 안정을필요로하는 정치였다면 81년은 第5공화국 정치스타일을 밝히는「體制정비의해」라 볼수 있으며 82년은「軌道진입의해」라고 할수 있읍니다.

이런 3단계를거쳐 국내정치가 안정되자 이제 일할 본격적으로 해보겠다고「先進조국」을 내세운것 같습니다.

나까소네 수상이 연초에 한국을 방문했고 프랑스대통령이 봄에 한국을 방문한것으로 알려진것도 국내정치가안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할수있읍니다.

2~3년전만해도 유럽국가들은 우리정부의 지도자들과 접촉을 꺼렸지만 지금은 그쪽에서 오히려 적극적인접촉을 희망하고있는 것으로알고있읍니다.

▲曺위원=이제 국내정치가 안정을 되찾고 국회중심의 정치활성화가 이뤄지려는 시점에서 언론의 활성화도필요치 않은가봅니다.全대통령은 오늘 流言蜚語의 폐해를 지적한바 있읍니다만 언론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때 음성적으로 유언비어가 나돌게 마련이니까요.

▲朴교수=오늘날은 정보사회입니다. 정보사회에선그때그때 모든뉴스가 모든사람에게 알려져야만 사회가 유기적으로 발전할수있읍니다. 언론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정보는 국민에게 유기적으로 전달되지못하고 사회기능이 유기적으로 발전할수 없읍니다.

언론의 활성화는 국민기본권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긴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찬반토의는 국민두뇌개발에 필요하며 언론활성화는 절대적인기능을 한것입니다.

▲曺위원=제가 駐美특파원으로 있는동안 全대통령은 포괄적인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그에앞서 남북한최고당국자회담제의를 했읍니다.

이 두가지를 합한 우리의 통일방안이 內外에 천명되자 특히 미국서는 한국의統一문제에 있어서 그전까지 北韓이 이론적으로 앞서간데 비해 우리한국측이 비로소機先을 잡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었지요.

이번에는 國政연설에서 南北韓최고당국자 회담개최를 북한에대해 거듭촉구하고 회담이 이뤄질경우 전쟁再發방지, 對外的 過當경쟁지양, 統一기반구축문제 논의등을 제시한것은 통일문제에있어 또 하나의 획기적인 이니셔티브로 평가될것같습니다.

▲朴교수=미국학자들은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 제안되기전까지는 北韓이 이론적으로 앞서갔다는 생각을 가졌읍니다.

그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해본것 입니다만 평화통일론은 6·25직후 金日成이 주창한 것이고 그래서 외국인학자들은 北韓이 통일문제에서 앞장서 간다고 생각한듯한데 그런 견해에는 전쟁직후인당시의 국내상황을 전혀 무시했다는 맹점이 있었지요.

그러나 7·4南北공동성명이후 南北韓이 당장이라도 통일되는 듯한 착각을가졌던 그들 외국인학자들은 그 이후의 진전상황을 보아가면서 金日成의 통일론이 武力赤化와 虛構에 찬 것이었음을 알게됐고 우리의 평화통일노력을 높이사게 돼 한국이 통일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이해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曺위원=경제분야에 관한 것인데요,세계적인 불황속에서도 우리는 안정위주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朴교수=경제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어서 뭐라고 말하기 어려우나 이번 국정연설에선 안정위주,공정거래관계가 강조된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의 경제정책이 高物價 정책이었음을 숨길수 없어요. 그런 高物價경제정책이 오랫동안 계속돼오면서 日本이 例로 등장하곤 했읍니다. 제3、4 공화국시절엔 日本의 경제발전 과정을 예로들면서 우리의 高物價가 어쩔수없다는 논리로 一貫해 왔읍니다.

그러니 경제가 발전하면서도 物價는 크게 오르지 않는 西歐型이나 臺灣型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日本型을 본받을게 아니라 철저히 臺灣이나 西歐型을 본받았으면 합니다.

全대통령이 물가안정을 강조한점은 물론 환영할 일이지요.

▲曺위원=우리의 경제발전은 국내보다 국제적으로 더욱 높은평가를 받고있읍니다. 80년대들면서 제5공화국 정부가 저물가정책을 편 것은 국내정치안정과도 관련되지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정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까지의 高度성장경제가「富國政策」이었다면 앞으로 低物價경제는「富民政策」이 되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제5공화국이 발족하면서 내세운 정의사회, 깨끗한정치등 주요이념이 그동안 어느정도 정착돼 가는것으로 생각되었지요.

그러나 최근들어 정부고위공직자와 대법원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부정은 그 지도이념이 아직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지 않나하는 인상을 주고있읍니다.

▲朴교수=全대통령은 예외없이 금년에도 부패추방문제를 언급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정부패문제는 웃물이 먼저 맑아야 한다는 점에 이론이 있을수 없읍니다.

그런점에서 이번 고위공직자비위에 메스가 가해진 사실은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국민도 그 사람들만이 부정을 저지르고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정부패문제를 안보적차원에서 다루겠다는 결의에 찬 말도 있읍니다만 그 말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면서도 부정부패의 척결이란 當爲性면에선 적절한 표현이라할 수 있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이죠.

【整理=河長春·李在武기자】

◇全대통령의 새해國政연설은 국제화시대를맞아 先進조국을 건설하기위한자신감과 포부를 밝힌것으로 분석하는 朴東熙교수㊨와 曺淳煥논설위원.

總和로 여는 中興의 길

全대통령 國政연설 各界반응

社會正義구현 굳은意志 돋보여

北韓 허심탄회하게 對話응해야

▲柳炯鎭씨(대한교련회장)=국정지표중「선진조국의 창조」에 역점을두겠다는 뜻을 밝힌데대해 교육계의 한사람으로서 공명한바가 크다.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 봉사하는 정치로 이끌어가겠다는 것은, 국민총화와 참된 민주정치 구현을 위한 굳은 의지로 보여진다. 특히 교육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전인교육 평생교육 유아교육 청소년직업교육등을 지속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뜻을 크게환영한다. 또한 우수교원확보 정책은 민주 정의 복지사회건설을위해 절실한 과제로서 우리28만교육자는 기필코 이뤄지기를기대한다.

▲鄭壽昌씨(大韓商議회장)=남북최고책임자간의 대화를 거듭촉구한것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다시한번 표명한것으로 북한측도 허심탄회한 자세로 응하기를 바란다.

경제부문에서 각종 경쟁강화노력을 계속하면서 중소기업육성시책의 강구와 복지농어촌건설기반의 확충및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꾀하겠다고 밝힌것은 우리경제가 당면하고있는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복지문제해소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申秉鉉씨(貿協회장)=경제부문에있어 안정기반을 튼튼히 다지면서 국제경쟁력강화에 집중적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정책방향은 현재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이룩할수있는지름길이라고 본다.

무역업계는 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수출증대가 필수적인만큼 정부의 시책에 발맞추어 기술개발과투자의 적극화는 물론·새로운 상품과 시장개발에 주력하여 수출기반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柳琦春씨(中小企協중앙회장)=중소기업 육성에대한 대통령의 강한의지에 감사하며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기술과 품질, 생산성향상을 통하여 내수진작은 물론 아세안및 아프리카 진출등 중소기업의국제화에 가일층의 노력을하겠다.

국정연설을 듣고 우리국민이 세계속의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같이느꼈다.

▲李鍾贊의원(民正黨원내총무)=불행했던 과거로인해 묶였던 被규제자들이 풀리게된것을 크게환영하지만 과거의불행을 다시 再生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밝은미래의 선진한국 건설을위한 계기로알고 기여해줄것을 바란다.

▲朴敬錫의원(民正)=全斗煥대통령이 국정연설을통해 被규제자의 解禁에관한 언급는 국민화합이란 차원에서 취해진 英斷으로 이를 환영한다. 앞으로 풀리는 사람들이 정부조치의 참뜻을 이해하고 깨끗하고 합리적인 정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金駿洙씨(변호사)=국민화합을 기치로 내세웠던 제5공화국의 숙제인 정치활동규제자에 대한 단계적해제조치는 우선 반가운 소식이다.

또 작년의 국정지표인 3대부정심리추방도 다소 시정되기는 한것같지만 아직도 권력형부정부패심리나 무질서심리가 은밀히 잠재해 근절되지 않고있으며 물가오름세심리억제는 구매력 고갈탓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사회정의실현을 위해 꾸준히 전진하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를 국민들은 기대한다.

▲辛相佑의원(民韓)=被규제자에 대한 解禁의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정국안정에 도움이될것이다. 또한 解禁의 폭이 전면으로 이뤄질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지리라 확신한다.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예동지들을 위해문호를 개방해야하며 모두함께民韓黨을 求心點으로 결속을 할 채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李東鎬의원(국민당 원내총무)=국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정치被규제자 解禁문제가 실현되게된데대해 깊은 감회를 느낀다. 모든정치인이 국정에 균등하게참여할때 보다 안정된 정국과 국민화합을 가져오리라 믿는다.

▲金鍾河의원(국민당)=제5공화국이 출범한지 2년이지난 현시점에서 이번 全대통령이 國政연설을 통해 밝힌 被규제자의 단계적 解禁발표는 晩時之嘆이긴하나 크게 환영한다. 국민화합적 입장에서 정부는 차제에 解禁의 시기도 가급적빠르고 빠른수록 좋다고다.

▲金圭豊씨(한국노총위원장)=全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선진조국의 창조를 위한 지도자의 굳은 신념, 그리고 전진적이고 실천적이며 구체적인 좌표가 명료하게 담겨져있어 신뢰와 더불어 전폭적인 갈채를보낸다. 안정을 바탕으로한 경제성장의 기반조성을위해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한데 만족하며 생산적노사협조체제를 위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방지와 실질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수립에 큰 기대를건다.

▲朱瑛福씨(대한체육회사무총장)=체육에 대한 소상하고 핵심을 찌르는 말씀은 놀랍다. 체육입국에대한 강한 의지가 깃들여 있는것같다.

문제는 앞으로 체육인들이 얼마나 맡은바 임무와 책임을 다하느냐에 달렸다. 한마디로 반가우면서도 어깨가 무겁다.

88년 올림픽과 86년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체육입국이 이루어질수있도록 국민모두가 노력해야할것이다.

▲金正鈺씨(한국연극협회이사장)=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를 구현하고자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우선 반갑게 느껴진다. 예술인인 나에게는 대통령이 문화예술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인상깊은데 「문화올림픽」개최를 위해 공연예술분야에 좀더 구체적이고 배려있는 정책을 세워줄것을 부탁드리고 다.

메아리

特技

金昌悅
<編輯委員>

아인슈타인이 고교시절 열등생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수학과 국어를 뺀 다른 과목 모두가 질색이었던 탓이다.

그는 꾀병으로 고향학교를 중퇴하고 취리히의 스위스聯邦工大에 입학시험을 치렀다가 낙방했다. 그러나 단 한 과목-월등한그의 수학 성적을 아깝게 여긴 학장은 그에게 「再修」할 고교를 주선하고, 그 이듬해 무시험입학을 허가했다. 이렇게 16세에 낙방했던 아인슈타인은 32세에 바로 그 대학의 교수가 되고 42세에 노벨賞을 받았다.

만일 아인슈타인이 한국태생이었다면 어떠했을까.

그가 어물어물 고교는 졸업했다 치고, 內申성적은 15등급. 학력고사에서는 特技인수학에서 滿點, 국어와 자연과학계열에서 점수를 좀 보태겠지만, 그의 大入배치 占卦는 「地方分校」가 고작이었을 게다. 그래서 그가 진학을 아예 포기한다면, 우리나라는 天才的인 숙련공 한 사람쯤을 얻을까 말까가 된다.

그의 약점은 「全方位學習」에 부적한 것이다. 그는 全人敎育의 「全人」이 못된다. 그약점이 바로 그의 天才性의 나타남이라해 봐야, 그것을 알아줄 「학관」이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가 없다.

도대체가 지금의 大入제도는 特技를 싫어한다. 고교3년의 전과목·전과정을 통달하고, 시험을 치러서는 전과목이 고루 滿點가깝기를 요구한다.

이런 판에 特技과목을 더 공부하는 것은 손해다. 오히려 취향에 맞는 과목은 접어두고, 다른 과목을 익혀서, 「전과목 滿點」을 겨냥하는 것이 현명하다. 「모난 돌은 정을 맞는다」가 이 경우의 眞理다.

참 이상한 일이다. 大入선발이나 進學指導의 뜻은 그가 지망하는 학과에 합당한 特技를 가리는 것이다. 사회가 그에게 기대하는것, 그가 일생을 의지해 살 것도 그의 特技다. 그런데 그 特技죽이는 것을 교육 正常化의 목표로 삼고있으니-.

이 사회에서 特技라면 體能을 친다. 그特技만 증명되면, 대학에서 다투어 모셔 가고, 特技를 키우는데 지장이 있을 세라, 사실상 학업을 면제한다. 올림픽을 앞두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큰돈 들여 전국을 누비며 「꿈나무」를 찾는다고 야단이다.

올림픽을 위하여 體能特技가 이처럼 소중하다면, 知能特技는 어떤가.

4년 한번의 올림픽은 體能特技의 최고수준을 겨룬다. 승리를 위하여 폭넓은 底邊의 밑받침이 있어야 하지만, 판가름은 그 최고수준에 달렸다. 나라의 死活이 걸린 頭腦올림픽에도 마찬가지 일면이 있다. 頭腦의「꿈나무」를 찾아 가꾸는 작업 역시 매우 시급한 것이다.

그를 위하여 참고할만한 것이 소련정부와 과학아카데미가 공동주관하는 「올림피아데」-전국규모의 학력 컨테스트다. 이 제도는 5단계에 이르는 지역별 시험을 거쳐 전국챔피언을 뽑고, 성적이 우수하면 大入에 特典을 준다. 50년대末 스푸트니크·쇼크때 미국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중의 하나가 자연과학 분야의 「올림피아데」였다.

지금의 우리 학력고사는 말하자면 全員참가의 올림피아데와 같으나, 特技를 억누르는 흠이 있다. 그러니 特技과목을 겨루는올림피아데를 병설하여 그 흠을 상쇄하면 어떤가. 자연과학 분야에서, 소질과 적성을가늠할만한 문제로 시험을치르고, 特技가인정되는 학생에게 特典을 주는 것이다. 그 特典은 특정학과의 무시험 진학, 그것이 어려우면, 학력고사 성적에 加點을 주는 것으로도 족하다. 세부적인 문제야 많겠지만, 10여년 쌓아 온 문교부의 학력고사 관리능력이 있으니, 걱정할것이 없을 줄 안다.

이리 되면 한국의 아인슈타인은 수학特技로 진학하거나, 학력고사의 加點을 받아, 비로소 「全方位秀才」들과 겨룰만 해진다. 그결과로 우리나라는 뛰어난 숙련공대신 天才를 한 사람 얻는다. 大入特典이란 말에 질겁말고, 유연하게 검토해보기 바란다.

영남향우회 창립파티

제해년을 맞이하여 귀하의 가정과 모든일에 신의 축복이 임하시옵기를 빕니다.

멀리 떠나온 고향길에 그리움! 생각하는 나그네들로 뜻을 모아 처음 마련한 회포의 자리를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하루를 빛내시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3년1월29일(토) 오후6시
장 소 : KENNEDY BANQUET HALL
991 Kennedy Rd.(Kennedy & Lawrence 동남쪽)
자 격 : 남녀노소회원에 한함. 회 비 : 1인당 $25
진 행 : 6시~6시30분 Cocktail(칵테일)
6시30분~7시 총회
7시~8시 Dinner(디너)
8시~1시AM 각종여흥(Door Price, Bingo 초청가수및 밴드, 댄스, 기념품증정)

연락처 :
정상우 743-8220 김영대 (705) 689-2272 배기덕 423-9899
심성택 741-7907 심재환 743-5830 김만구 486-0397
안수용 745-1322 김현모 251-6578 박학수 751-3206
백경락 755-7635 김진수 638-3447 신중화 921-4466
서형석 261-2197 정해봉 465-9992 박태조 499-3721
박시환 654-3358 김정환 439-3044 서명식 249-6830

영남향우회 창립위원 일동

동양식 디자인의 수입품

다양한 색갈과 품질. Rugs·담요·카펠 직사각형 등근형 8각형

Sarouk

Kirman

Chinese

OLYMPIC CARPET
763-4307
2763 Dundas St. W.
(at the corner of Indian Rd. Cres.)

FREE UNDERPAD
이 쿠폰을 2월15일까지 가져 오시면, 카펠을 살때 under-pad(카펠 밑에 까는 스폰지)를 Free로 드립니다.
COUPON

交通部가 택시會社 만든다

經營정보·運轉士 월급등 適正算出자료 마련위해

내달부터運營 서울市에 사업免許 신청

택시회사와 물없는 실랑이를벌이던 교통부가 궁여지책끝에 택시회사를 차리게 됐다。물론 영리를목적으로한 사업은 아니고 일반택시회사의 정확한 경영정보와 운전사의 적정월급액수등을 산정하기위해 나온 착상으로 불신풍조가 빚어낸 우리나라행정특유의 걸작품이다。교통부는 18일 오는2월부터 이같은 시범택시회사를 운영키로 확정, 서울시에 사업면허를 신청했다。

◇교통부는 고질적인 택시회사의 임금및근로조건등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궁여지책끝에 시범택시회사를 직영해보기로 했다。

교통부가 이처럼 택시회사를 시범적으로 경영하게된것은 그동안 서울, 부산을 비롯한 전국대도시의 택시회사들이 ▲원가계산▲사납금▲운전사월급액책정등을 둘러싸고 정확한 산출근거를제시토록 요구했으나 현실과동떨어진 자료만 내놔 정책결정을하지 못한데다 지난해 말부터는 고정월급제 실시와 택시합승금지조치등에따른 행정규제에도『수지경영상 따를수없다』는 반응을 보여 궁여지책으로 이같은 착상을하게 됐다는것이다。

교통부는 시범택시 회사를 운영하면서 각종 정보와 데이터를수집, 말썽의 소지가 되고있는 월급액수, 사납금, 원가기준 근로기준등을 산정 전국택시업체로 하여금 이기준에맞게 운영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위해 산하 공익법인인 교통안전 진흥공단으로 하여금 3억8천만원을 들여 시범택시50대를구입토록했고 택시마다 새로개발된 미터기를부착키로했다。

새로 개발된 미터기는 ▲주행거리▲수입금▲승차회수등이 컴퓨터에 기록돼 운전사의 속임수를 막도록돼있다는것。

이 시범택시회사는 택시경영에대한 자료를 수집하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영방식을 현재의 택시회사에 부합시키면서 교통부가 지향하는 운전사월급제의 모델을 가미하고있다。즉 서울의 택시회사규모인 택시50대와 운전사 1백5명에 정비사3명을 고용하며 관리직8명을두고 근로조건도 다른 택시회사와같이 1일1교대를원칙으로 하되 장래 운전사근로조건개선에 맞추기위해 1일2교대도 시험적으로 채택한다는것。

운전사 급여제는 사납금을 없애고 기본급, 연장및야간수당, 주월차수당을 고정급으로하고 월(13.5일)91만원이상 벌어들이는 운전사에겐 일정률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돼 있다。

교통부는 시범택시사업소를 발족시키기위해 지난연말 이미 안전진흥공단 기술이사가 직접 택시를 세내 하루 9시간운행을 해보는등 사전예행연습까지했는데 실제로 3만4천원의 수입을올렸었다。

교통부는 아울러 이시범택시를 운영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영정보로 노사문제뿐 아니라 택시요금조정의 기본자료도 얻어낼 속셈이어서 이제도 자체를 다목적으로 활용할계획이지만 이소식을 들은 기존택시업계가 상당히 반발할기세다。

이에대해 기존업계에서는 의문을 제시하고있다。시범택시 운전사들이 일반택시 운전사들과 달리 양심적으로 번요금을 다 가져오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진흥공단은 새로 개발한 미터기를 부착하면 어렵지않을것으로 판단하고있다。

문제는 합승을 체크할방도가 없다는데있는데 안전진흥공단은 운전사교육으로 합승을 일체 못하도록 할 방침이며 회사명칭이 택시에 표시되기때문에 감히 불법합승을 할수없을 것이라고 낙관하고있다。

法官봉급 이달부터 4~5% 引上

대법원은 18일「법관보수에관한 규칙」을 개정, 법관의 봉급을 평균4~5%씩 인상, 이달부터 지급키로 했다。

직급별 인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장=1백11만9천원 ▲대법원판사=75만6천원 ▲사법연수원장및고등법원장=69만8천원 ▲행정처장·법원공무원교육원장·지법원장·가정법원장·고법부장판사=63만3천5백원 ▲일반법관(1~10호봉)=56만8천5백원~29만9천원

종교서관
●기독교및 일반서적
★일반서적 다량입하
714 BLOOR ST. W.
535－1920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서부慶南등 暴雪 곳곳事故

居昌 시외버스 벼랑굴러 15명重輕傷

湖南고속도선 12重·6重충돌 10여명死傷

【地方=綜合】17일하오부터 18일상오까지 晋州, 山淸, 咸陽, 居昌등 남서부경남일대에 10~15㎝가량의 눈이내려 영·호남을 연결하는 팔령고개등 국도36개 노선중 27개노선이 18일상오 한때 차량이통제되었고 곳곳에서 눈길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또 전북茂朱지방에도 이날 10.5㎝가량의 눈이내려 內藏-淳昌을 연결하는 도로등 4개도로의 교통이 한때두절됐다。

이날 내린눈으로 17일밤8시45분께 경남居昌郡南上面 王兵里 바티재고개길에서 서부교통소속 시외버스1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30m벼랑아래로굴러 버스에타고있던 新院국교교장 정순복씨(58)등 교사4명을포함 승객15명이 중경상을입는등 눈길교통사고가 빈발했다。

또 눈이내려 빙판이된 호남고속도로에서 18일상오 12중충돌과 6중충돌등 2건의 연쇄충돌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상오9시25분께 全北益山郡王宮面溫水里 학호부락앞 호남고속도로(회덕기점72㎞)에서 全州를떠나 서울로가던 전영정기화물소속 大邱7아1008호트럭(운전사 박상필·26)이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지그재그으로 달려오던 仁川1바8048호 마크5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뒤따라오던 고속버스와 트럭등이 12중 연쇄충돌사고를일으켜 대신정기화물소속 忠北7바8304호 트럭에 타고있던 40대운전사 1명이 숨지고 한진고속버스 운전사 무정은씨(48·仁川市松峴洞66의4)등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상오10시께 12중 연쇄충돌사고가난 지점으로부터 남쪽으로 5백m지점에서 또다시 6중연쇄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서울7나9017호 트럭과 仁川8아5919호 트럭이 앞서 사고가난지점을 빠져나가려다 앞에서 통제를받고 정차해있던 全北7가5489호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대기중인 全北1지1137호 승용차 忠南7아4635호트럭 全北7가9866호 트럭이 6중으로충돌해일어났으며 인명피해는없었다。

이날 2건의 연쇄충돌사고로 호남고속도로교통이 1시간30분동안 두절 됐었다。

한편 18일상오 6시30분께 강원溟州郡沙川面沙川津里앞 50m해상에서 注文津항 소속 1.44톤급 공진호(선장 한상철·24)가 때마침 내린눈으로 시야가 가려 암초에 부딪쳐 선원 金인기씨(28·강원溟州郡注文津邑橋項4里5班)가 실종됐다。

또 이날 새벽3시께는 溟州郡連谷面領津里앞 1백m해상에서 注文津항소속 1.05톤급 금룡호(선장 주차남·45)가 2~3m의 파도에 침몰, 선장주씨와 선원서정출씨(31·溟州郡注文津邑注文3里8班)등 2명은 헤엄쳐 나왔다。【合】

구독신청
배달사고
633-2361

木浦 病醫院처방전 발행急增

올들어 하루 6백件

【木浦】전남木浦지역에있는 병·의원의 처방전발행이 늘고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내75개병·의원에서는 지난해8월부터 12월말까지에는 5개월동안 모두 2천5백97건의 처방전을 발행, 하루평균 15~17건정도의 저조한 실적을 보여 약사들의 큰 반발을 받았으나 지난10일이후부터는 하루평균 5백50~6백건으로 늘고있다는것。

이처럼 처방전 발행건수가 늘고있는 것은 지난7일 金正禮 보사부장관이 木浦에내려와 木浦에서 실시중인 제2종 의료보험이 정착할수있도록 의약인이 노력해줄것을 당부하면서 계속 병·의원의 처방전 발행이 저조하게 할 경우 이에대한 대응조치를 취할수밖에 없다고 밝힌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제2종 의료보험이 실시된 木浦지방은 그동안 의약 분업문제를 둘러싸고 의사회와 약사회의 주장이 엇갈려 많은 진통을 겪어왔었다。【木】

이발가위로 찔러 숨지게

딴남자와 同居여인, 남편행패에

【東草】강원 東草경찰서는 18일 尹순덕씨(26·여·강원襄陽郡襄陽邑衆合里)를 상해치사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尹씨는 지난2일하오4시께 동거중인 李모씨(23)집 안방에서 자신을 찾아온 남편 李재춘씨(29·충북堤川市靑田洞)가 집으로 돌아갈것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자 이발용가위로 李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는 것。

그런데 尹씨는 숨진 남편 李씨와 지난78년 결혼, 같이 살아오다 남편을놔두고 襄陽에서 李씨와 동거중인데 경찰에 남편이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리다 스스로 찔려 숨졌다고 허위신고했다가 경찰의 수사결과 범행이 드러났다。【東】

過速버스 치여 行人 2명死傷

【大邱】17일하오8시10분께 大邱市東區新川1洞보영약국앞 횡단보도에서 극동버스소속 대구5자1738호 시내버스(운전사 김규학·27)가 길을건너던 행인2명을 치어 30세가량의 남자를 숨지게하고 정효걸군(9·大邱市壽城區泛魚洞1556)에게 경상을 입혔다。

사고는 버스가 泛魚洞에서 시내쪽으로 운행중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를 않고 과속으로 달리는 바람에 일어났다。

輸入쇠고기값 引下·放出늘려

돼지고기값 安定위해 6백g에 2천9백원

내일부터

수입쇠고기의값이 내리고 방출량도 2배로 늘어난다。

농수산부는 18일 구정(2월13일)성수기를 맞아 육류가격을 안정시키고 수급을원활하게 하기위해 오는20일부터 수입쇠고기(포장육)의 소비자가격을 6백g당 현재의 3천2백원에서 2천9백원으로 9·4%내리고 수입쇠고기의 방출량도 현재1일 1천~1천2백마리수준에서 2천마리수준으로 확대 공급키로했다。

농수산부 당국은 이같은수입쇠고기 가격의 인하는 최근오름세를 지속하고있는 돼지고기수요를 수입쇠고기로 대체해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위한 배려도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최근 육류가격은 쇠고기의 경우 소비자가격이 6백g당 전국 평균4천8백원선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있으나 돼지고기는 지난해말께부터 오름세를 보여 지난해 9월의 2천2백원(6백g)에서 12월엔 2천3백원, 올들어서는 일부 업소에서 2천6백~2천7백원으로 올려 받고있다。

한편 농수산부는 시기, 계절별로 가격진폭이 큰 돼지고기값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직영으로 연간10만마리를 공급할수있는 대규모양돈사업장을 충남瑞山종축장에 설치해서 우량종돈의 보급확대와 가격 조절장치로 활용하고 축산진흥기금 2억원을들여 각종 전염병에 감염된 돼지의 도살처분 보상제를 처음으로 실시, 처분돼지에 대해서는 시중가격의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해 감염돼지의 음성거래를 막기로 했다。

농수산부당국은 지난해 반기에 성행했던 돼지콜레라로 폐사 또는 조기출하한 돼지(체중20~30㎏수준)가 20만마리 이상인것으로 추정하고 이때문에 최근출하물량이 달리자 양돈업계가 출하물량을 조절, 가격인상을 꾀하고 있다고밝히고 물가안정과 수급원활을 위해 돼지고기가격이 계속오를경우 돼지고기를 긴급 수입할것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大法院 형사부

전 宜寧경찰서장에 징역10월 原審파기

대법원형사부(주심 金尙源대법원판사)는 18일「경남宜寧 禹순경 총기난사사건」과관련, 직무유기혐의로 기소된 전宜寧경찰서장 崔在潤피고인(58·당시경정)에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피고인의 당시 행동은 규탄받아 마땅하지만 당황한나머지 거의 정상적인 사고력을 잃은 상태에서 사태에 대응한 조치가 적절하지못했다는 것만으로는 형법상의 직무유기죄가 성립될수없다』고 밝히고 징역10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丁淳喆 피고인 5년6월 확정

美문화원 放火

대법원형사부는 18일 光州미문화원방화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丁淳喆피고인(28·전남靈光郡白岫邑吉龍里9)에 대한현주건조물방화및계엄법위반등 사건 상고심선고공판에서 丁피고인의 상고를기각, 징역5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昌慶苑매점 入札방해

돈받은 6명令狀

서울시경은 18일 昌慶苑어린이놀이터 종업원 朴柱祥씨(36·서울恩平區驛村洞42의39)등 6명을 입찰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金英任씨(40·여·서울麻浦區合井洞347의28)를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의하면 朴씨등 6명은 지난17일하오3시께 문화재관리국 3층에서열린 昌慶苑매점입찰에서 金씨로 부터 7호매점을 낙찰받도록 해달라는부탁을받고 다른 응찰자인 劉仁煥씨(서울西大門區弘恩3洞366의13)등 3명이 입찰장에 들어가지못하도록 방해한후 1천7백만원에 매점이 낙찰되자 金씨로부터 사례비조로 1천1백만원을받아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다。

서울民事지법 판결

"無擔保기업어음(CP)不渡 短資회사 賠償책임 없다"

신종어음으로 사채시장에서 각광을 받고있는 무담보기업어음(CP)이 부도가 날경우 이를 매출한 단자회사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판결이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朴英植부장판사)는 18일 李光石씨(서울江西區新月洞427의2)등 11명이 한국종합금융을 상대로낸 예치금반환 청구소송에서『CP는 무담보어음이므로 중간거래자인 단자회사에는 배상책임이없다』고 밝히고 원고李씨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李씨등은 지난해 1~2월께 사채시장에서 한국종합금융이 배서한 泰和제지발행의 액면가 1천만원짜리CP 20장을 한장에 9백48만여원씩에 샀는데 지난해 4월 泰和제지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어음을 지급받지 못하게되자 한국종합금융 회사의 신용상태나 자산의건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어음을 매출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고李씨등이 갖고있는 CP가 한국종합금융의 창구를 통해 직접 매출된것이 아니고 사채시장에서 사들인 것이므로 한국종합금융의 배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배상책임을 물을수는 없다』고 밝혔다。

작은 힘의 勝利

李喆洙씨 救命앞장 야마다女史

어린시절 友情인연…생애進路도바꿔

재미교포 李喆洙씨(30)는 10년동안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무죄석방의 날을 손꼽게 되었다。

그동안 李씨의 석방탄원을 위해 작은 힘을 규합해온 선도자들중에는 미모의 일본인3세 야마다·탐코여사(사진·30)가 있다。야마다여사는 李씨의 석방을 위한 모임이라면 로스앤젤레스든 샌프란시스코든 신명들린 사람처럼 뛰어 다녔다。

그녀는 어린시절에 우정을 나누었던 한 이민족 청년의 오명을 벗기기 위해 20대 후반을 바쳤을뿐아니라 그 정열에 의해 자신의 생애를 전환했다。

야마다여사는 19세이던 71년을 전후해서 샌프란시스코[illegible]부근 중국인촌과 일본인촌 근처에서 동갑나기인 李씨와 함께 어울려 지내던 사이였다。지금도 야마다여사는 李씨가 그때 나와 동생 레이꼬를 따뜻하게 대해준 친구였다고 술회하고있다。

77년 샌프란시스코교에서 학교교사를 하던 야마다여사는 李씨가 차이나타운살인사건에 연루, 부당한 옥살이를 하다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다。

李씨의 인간성을 신뢰하던 야마다여사는 李씨의 무고함을 직감, 변호사비용을 모금하는한편 스스로 李씨의 억울함을 구하기 위해 생애의 진로를 바꾸어 헤이스팅스법과대학원에 등록, 마침내 캘리포니아州 변호사시험에 합격까지했다。

그후 오클랜드소재 사업·이민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일과만벗어나면 李喆洙구명위원회등 무료법률구조활동에 몰두했다。

李씨의 석방이 명백해진 지금 야마다여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회고한다。

『李喆洙구명위원회가 만일 돈많고 강력한 슈퍼맨을 후원자로 찾아나섰다면 이처럼 강한 힘을 얻지못했을것이다。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그러면서도 힘을 모으면 무슨일이든 해낼수있음을 알게 된 것이기쁘다』고。

李喆洙사건은 너나할것없이 미국이라는 이질사회의 벽에 부딪치고있는 한국계와 일본계들에게는 남의일같지 않은 사건이었다。【金炳武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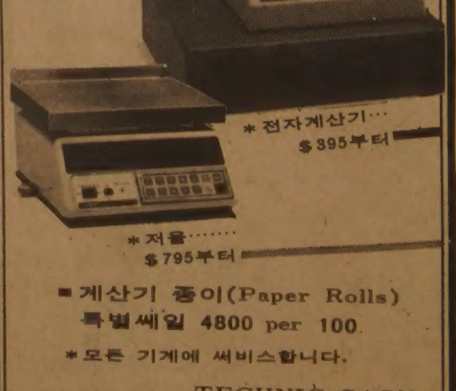
새로 개업한
일본식당
"KURI"
栗林
ㅁ각종 스시및 일본식요리
ㅁ부페식파티등 단체예약 환영
(100명이상 수용함)
ㅁ술 면허 있음
(새벽 1시까지 open)
◀ 영업시간 ▶
월～토 11 : 30AM－2 : 30PM
6 : 00PM－1 : 00AM
일요일 6 : 00PM－1 : 00AM
165 Bloor St. E.
(블루어×Church)
☎ : 960－1765

어디에도 비교될수없는
저렴한 가격과
아담한 분위기속에서
고객을 맞이하고있아오니
한번쯤 들려보십시요!

오 뎅 백 반	$2.95
칼 국 수	$2.95
우 동	$2.95
짜 장 면	$2.95
김 밥	$2.50
통 만 두	$2.95
공 밥	$2.95
비 빔 밥	$2.95
불 백	$4.95
갈 비 백	$4.95
생선찌게백	$3.75
두부찌게백	$3.25
만 두 국	$2.95
떡 국	$2.95
떡 만 두 국	$2.95
된장찌게백	$3.25
순두부찌게백	$3.25
통 닭	$4.95
1/2 닭	$2.95

☎537-0432
내고향 통닭집
658½ BLOOR ST. W.

TEC
전자계산기
저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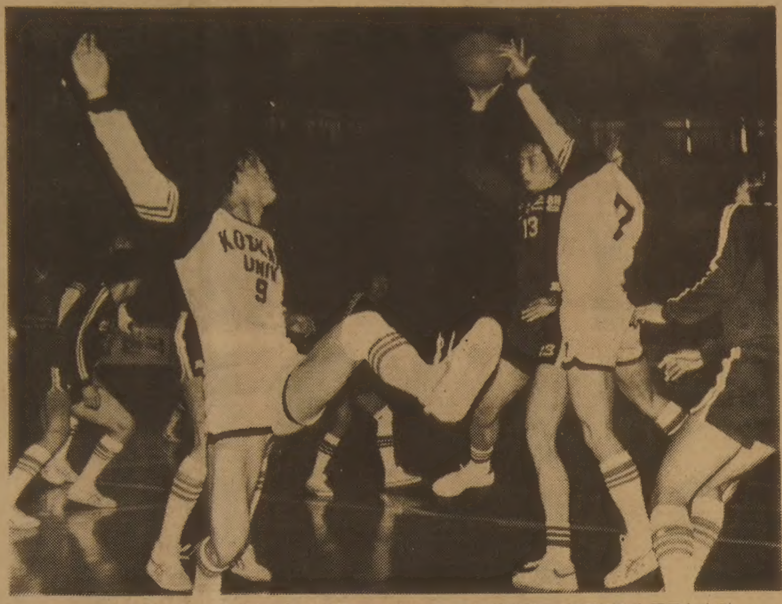


＊전자계산기…
$395부터
＊저울……
$795부터
■계산기 종이(Paper Rolls)
특별세일 4800 per 100
＊모든 기게에 써비스합니다.
TECHNIC CASH
REGISTER LTD.
1368 Kennedy Rd.
☎: 757－9209

延大、優勝문턱에 한발

농구選手權 企銀을 76-71로 꺾고 3勝 선두

金賢俊 슈팅폭발 勝機잡아 — 2승의 現代와 爭覇가능성



◇'질수는 없다' 死力수비 남자부리그 韓國銀行과 國民大의 격전。韓銀의 韓承燁(13번)이 점프하며 패스하는순간 國民大의 李宇振(7번)과 朴成大(9번)가 악착같이 마크하고있다。韓銀이 84-72로 승리。

延世大는 18일 장충체육관에서 지행된 제37회전국남녀종합농구선수권대회 4일째 남자부리그에서 金賢俊의 폭발적인 슛과 高明和·吳世雄의 분투로 企業銀行을 76-71로꺾고 3연승을기록, 2승의 現代와함께 남자부 패권을 다툴 가능성이 커졌다.

韓國銀行은 코치 李秀基까지 코트에뛰어들어 총력전을 편끝에 國民大에 84-72로완승, 2승1패를 기록했다.

한편 여자부C조에서 商業銀行은 金恩玉 金瑛姬 두장신의 활약으로 朝興銀行을 67-43으로 대파하고 1승을 마크, 같은1승의 東邦生命과 8강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했다. 朝興銀行은 2패로 탈락했다.

이날 대학의정상 延世大와 노련한 企業銀行의대전은 초반부터 열전이 예상됐으나 延世大가 센터부재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리바운드에서 맹활약, 게임의 주도권을 잡았다.

延大는 金賢俊이 企銀수비진을 마구헤집으며 슛을날렸고 李炳勳이 리바운드에 가세, 企銀을 앞질렀다. 企銀은 센터 任成烈이 골밑에서 분투했지만 安鍾寬 金聖潤의 슛이 부진해 延大의 페이스에 말렸다. 延大는 高明和와 吳世雄이 포스트에서 金賢俊과 함께 슛을 날리고 재빠른 패스로 상대수비를 흔들어 전반을 43-34로 앞섰다. 후반들어 企銀은 安鍾寬의 슛이 호조를 보이면서 한때 51-44, 53-46까지 추격했다.

◇제4일전적

▲남자부리그

韓國銀行 84 (45-28 / 39-44) 72 國民大 (2승1패) (3패)

延世大 76 (33-37 / 43-34) 71 企業銀行 (3승) (1승2패)

▲여자C조

商業銀行 67 (34-23 / 33-20) 43 朝興銀行 (1승) (2패)

재일동포 張明夫·李英求 三美입단 契約체결

각 8천만원·4천4백만원

◇李英求

◇張明夫

張明夫·李英求 두 在日同胞선수들이 18일 三美슈퍼스타즈와 입단계약을 체결, 국내프로야구에 본격적인 해외선수영입의 문을 열어놓았다.

日本프로야구팀 히로시마(廣島)카프의 우완 정통파투수였던 張明夫는 이날 배번 34번의 三美슈퍼스타즈 유니폼을 입고 삼입빌딩입단 환영식에 참석, 『8년전 日本프로팀선수로 모국을방문, 언젠가는 모국에서 활약할수 있었으면 했던 꿈이 이제야 이루어졌다. 한게임 한게임 성실히 뛰어 83년 한해에 20승을 올려보겠다』고 새생활의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히로시마의 내야수로 활약했던 李英求는 三美팀 9번을 달고 『희망했던 대로 張明夫형과 함께 三美팀에서 뛰게되어 기쁘다. 82년 히로시마서 타율3할3푼9리를 기록, 타격상을 받았다. 83년한국프로에서도 3할이상 3할5푼을목표로 하고있다』고 말했다.

張明夫는 계약금4천만원, 연봉4천만원으로 모두 8천만원을, 李英求는 계약금 2천만원, 연봉 2천4백만원으로 모두 4천4백만원을 받으며 별도로 주택을 제공받게된다.

두선수의 입단식을 마친후 三美 金振榮감독은 『가장 걱정했던 투수와 유격수를 확보했다. 張明夫·任昊均 金相基등을 적절히 기용하면 최소한 50승은 문제없다』고 만족해했다.

野球協집행부 확정

대한야구협회는 18일 새로운 회장단과 이사(17명)·감사(2명)등 집행부 임원을 확정, 발표했다. 상임이사는 추후 결정된다.

◇신집행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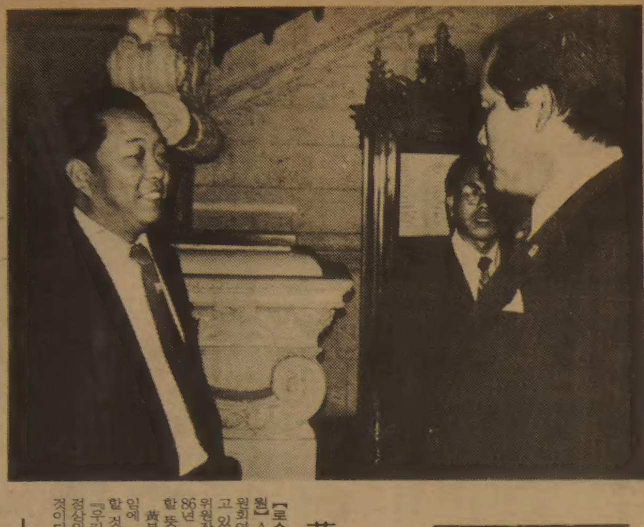
▲회장=崔貴哲 ▲부회장=盧楨鎬·方熙(이상留) 李洪永·金宗太(이상新) ▲이사=朴忠淳·閔俊基(이상留) 金根俊·朴象圭·宋鈺淳·李八官·徐德寅·林忠憲·金鍾權·金진선·姜榮植·高益中·黃基大·申仁植·金秉宇·韓乙龍·南周鉉(이상新) ▲감사=李圭伯(新)·李泰馥(留)

李東燦농구협회장 정식辭意

후임會長에 徐成煥씨를추천

李東燦 대한농구협회장은 18일 정식으로 사의를표명했다. 李회장은 후임회장으로 徐成煥씨(59·太平洋그룹 회장)를 추천했다. 후임회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서 선임된다. 李회장은 80년9월부터 회장직을맡아왔다.

南北韓 체육인 對話2분간



『안녕하십니까』『金선생, 안녕하십니까?』『曺선생, 안녕하십니까?』13일밤 9시(현지시간) IOC회의가열린 LA빌트모어호텔로비,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曺相鎬사무총장㊨과 북한의 金裕淳IOC위원이 악수를 나누며 2분간 「남북대화」를 가졌다. 먼저 다가오며 인사를 건넨 사람은 曺사무총장, 이어 서울올림픽조직위의 李在弘국제홍보국장이 북한측 張웅과 악수를 교환했고 曺사무총장이 『호텔에서 불편한 점이 없으십니까』라고 먼저 묻자 북한의 金裕淳위원은 『별로 없습니다. 요즘 서울날씨는 어떻습니까』라며 화제를 날씨로 돌렸다.

【LA支社=趙鴻鎬기자】

서울 아시안게임 中共 참가뜻비쳐

黃中 올림픽부위원장 "86년이후 스포츠 전면交流전망"

【로스앤젤레스=李台永특파원】ANOC(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총회에 참가하고 있는 中共올림픽위원회부위원장 黃中은 17일 中共이 86년 서울아시안게임에 참가할 뜻을 비쳤다.

黃부위원장은 「서울아시안게임에 中共이 선수단을 파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대해 『우리는 뉴델리에서 차지한 정상의 위치를 포기하지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계최강인 中共탁구팀을 서울에 초청한다면 오겠느냐』는 물음에대해 黃은 『그것은 신중하게 고려할 과제다. 그러나 86년이후 양측의 스포츠교류가 전면적으로 이뤄질것으로 알고있다』고 대답했다.

黃中은 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韓人청년중에 국가대표급실력의 소유자가 많이있다고 들었다. 특히 축구에서 뛰어난 선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LA五輪취재 한국ID카드 35명서 65명으로 늘려

【로스앤젤레스=李台永특파원】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7일하오 이곳에서 보도분과위원회를 열고 명년에 로스앤젤레스올림픽을 취재할 보도진의 인원을 7천8백명으로 제한키로하는 한편 다음올림픽을 개최하는 한국에 대해 보도진 ID카드를 앞서 책정됐던 35명에서 65명으로 늘리기로 원칙적인결정을 내렸다.

美國은 이미 확보된 4백명이외에 3백명의추가배정을 요청했으나 결정되지않았다.

총7천8백명의 보도진가운데 취재기자의수는 2천8백명으로 돼있다. 로스앤젤레스올림픽보도진수에 대한 최종결정은 오는3월 뉴델리서 열리는 IOC총회서 내려진다.

한편 IOC는 로스앤젤레스올림픽TV중계료에 대한 중재에 나섰으나 조직위의 요구액과 각국의 제시액에 큰차이로 매듭을 짓지못하고 있다. LA조직위는 중계료 총액을 2억5백만달러로잡고 이미 美ABC와 1억2천5백만달러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日本에대해 1천9백만, 한국에 대해 8백만달러의 중계료를 요구,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卓球출전 代表후보 30명확정

25~26일 評價戰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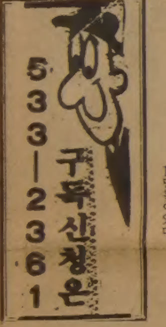
오는 4월28일부터 5월9일까지 東京에서열리는 제37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파견 국가대표 선발 최종평가전이 남녀 15명씩의 후보들이 참가, 25·26일 文化체육관에서 풀리그로 벌어진다.

탁구협회는 지난15일 끝난 종합선수권대회 남녀단식 8강외에 국제대회입상 가능성을 감안한 7명씩의 후보를 선정, 최종 평가전에서 기량을 겨루도록 했다.

◇평가전 출전선수

▲남자부=尹吉重·劉聖憲(삼호) 朴昌益(대우) 金琦澤·吳炳爲(제일합섬) 盧潤寬(국정교과서) 朴吉民(삼인고) 安宰亨(광성공고·이상 종합선수권8강) 金完·李在動(제일합섬) 趙東元(국정교과서) 李昌勳·鄭聖秀(성무) 權王澤(한성대) 李正範(광성공고·이상추천선수)

▲여자부=申得花(부산코카콜라) 白良美·辛慶淑(동아건설) 梁英子·金淑(이일여고) 白順愛(대한항공) 李慶子(제일모직) 朴錦珠(동아건설·이상 종합선수권 8강) 安海淑·黃男淑(동아건설) 尹環美(신탁은행) 金貞美·李美雨(제일모직) 李貞淑(대한항공) 朴末粉(부산코카콜라·이상 추천선수)



구독신청은 533-2361

卓球 국제심판 새로 66명탄생

탁구국제심판 66명이 새로 탄생, 탁구협회는 모두 80명의 국제심판을 확보케 됐다. 지난해8월 서울에서 실시된 국제심판강습회와 전형에 응한 86명중 66명이 18일 국제탁구연맹으로부터 국제심판 합격통지를 받았다. 종전 국내의 국제탁구심판은 14명뿐이었다.

金昇淵회장 유임 아마추어 복싱聯

◇金昇淵회장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은 18일상오 대한체육회 강당에서 82년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金昇淵회장을 유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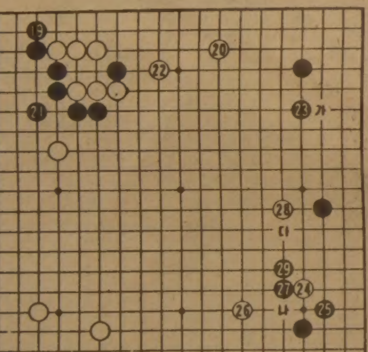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지난해보다 1억여원이 늘어난 5억4천9백50여만원의 83년 예산을 확정했으며 6월 서울서 열릴 첫 세계대회 개최안도 통과시켰다.

第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8局 第3譜 19~29 (각5시간·덤5집반)

白(6段) 徐能旭〈1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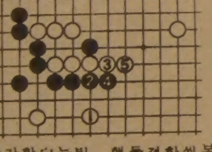
黑(7段) 徐奉洙〈1勝〉



이들은 지금까지 名人戰에서 3번 대결하여 2승1패로 徐7단이 앞서고 있다. 우선 연령, 경력면에서 徐6단이 뒤지는 때문에 승률로 자연히 徐7단이 앞서지만 단3판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려운일이며 부지와 끈기는 오히려 徐6단이 강한면을 보일때가 있으니 오늘 이바둑도 눈을 크게뜨고 지켜볼만하겠다.

그런데 白22가 완착이었던 모양이다. 黑19에서 21은 徐7단 특유의 전법이라 보아지는데 여기서 白이 상변에 집착한것이 문제란것이다. 이왕 白20을 두어 22는 「간」자리에 전개시기는 외견도 있었고 아니면 참고도처럼 白1로 黑2, 4를 유인하고 白3, 5로 진출하여야 실전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외견도 있다.

뿔뿔이 흩어진 白돌



黑23이 발을 내는가하면 白24에 대한 黑25가 실리를겸한 공세수단. 徐6단은 즉각 白26으로 벌려갔지만 하나 「28은 黑27로 차단당하여 외목이다. 과거 坂田榮男9단처럼 白「나」로 모하든지 「다」쪽으로 달려야 했다」고 국후에 외견이 분분했다. 그리고 黑27 다음 白28은 黑29로써 白돌이 모두 흩어진 꼴이다. 【一凡】

張吉山 〈1643〉

黃晳暎 作 /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03)

묘옥은 계화 부부와 여환스님이 경기도의 각처로 돌아다니며 불공과 굿판을 벌이고 있음을 전생이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 묘옥은 놀이판의 흥청거리는 화기를 잊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그 여자가 곧 실절할만큼 여염 아낙네의 정숙함을 지니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런점에서는 칼로 벤듯 하여 아무리 여각의 안주인이라 하나 내외의 법도에 어그러짐이 없었던 것이다. 다만 가무음곡과 신명은 묘옥의 기질에 맞는 바가 있었을 뿐이었다. 묘옥이 그러한 기색을 보이니 경순은 정이 가득 담긴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좀이 수시는 모양이지…』

『원님 뵙고 환자 타기라면서요?』

묘옥은 살짝 눈을 흘기고는 품 안에 잠든 여문이를 살그머니 감싸안고일어났다.

『방에 누이고 점심상 들일게요』

『장쇠 들어오면 먹지』

『아녜요, 곧 들어온댔어요』

묘옥은 여문이를 안방에 살그머니 눕혀놓고 나왔다. 부엌에서 솥 안에 그릇째 들여놓았던 주발을 꺼냈다. 손끝이 따가울 정도였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을씨년스러운 날씨라 컬컬하겠거니 싶어서 뒤란에 나가 술을 한병쯤 걸렀다. 첫 나물을 놓고 연평 굴비 굵은 놈으로 노릿노릿하니 구워 올려 놓았다.

『어이구, 비린내가 온동네 풍기겠네』

어쩌구 하면서 이제는 떠꺼머리가 다된 장쇠가 비오는 마당을 건너왔다.

『올라 오너라, 밥 먹자』

『이건 뭐 되지 않는 철에 비나 내리구 심심해서 죽겠네』

바깥채 객점을 보던 장쇠가 걸거리 내다보는 일도 실증이 난 모양이었다.

『얘 그래두 아무리 흉환이라지만 금싸라기같은 비다』

『올 농사두 다 망했다는데 이깟 한줌금으루 되겠어요?』

『또 아냐? 몇년 망한 거 벌충하게 될지』

묘옥은 두 사람에게 웃어보이며 상을 마루에 갖다 놓았다.

『당신두 같이 하지』

『아뇨 나는 이따 먹지요』

『누이두 하십시다』

묘옥은 이날까지 이경순과 겸상을 해본적이 없었다. 그것은 송파서 주모로 겪어온 생활의 버릇이기도 하였고, 어쩌면 경순이 어려워서였다. 그런 어려움은 신분에 차이가 있었다거나 그냥 이십년 가까이의 나이 차이가 있다는 단순한것이 아니라, 어떤 죄책감 비슷한 데서 오는 것이었다. 묘옥은 일찍기 정인을 찾아서 길에나섰고, 그 죽음의 소문으로하여 스스로 사당으로 자신을 내쳤던 것이었다. 이경순은 묘옥을 행중에서 건져내느라고 드디어는 조강지처까지 횡액을 당하고 패가하였던 터였다. 묘옥은 물론 지금은 다 사그라져버린 재와 같이 흔적도 없지마는 목숨을 다하여 한 사내를 그리워 했었다. 재는 풍편에 날아갔지라도 그 화인은 날뜻이 지금 여자의 가슴팍에는 아직도 연비의 검은 자취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여문이가 태어나면서 그 불씨는 까무룩하니 꺼져 버렸지만 잊혀진것은 아니었다. 이경순은 묘옥에게는 은인이었고 한 점 혈육을 낳게한 분이며 그에게 새 생활을 가져다준 존경할 어르신네였다. 그랬다. 계집이 사내를 목숨을 다하여 그리워하는 일도 있고, 그런것이 변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모양이다. 따스한 정으로 자라나는 모양이다.

오시오. 오시요. 오세요. 오셔요

우리말 상식 <투고환영>

◇이런 말을 아십니까?

▲곁가다=똑바로 가지 않고 도중에서 다른 길로 가다. 예=그 사람 인생은 곁가고 있다고 봐야 옳아.

▲고지랑물=더러운 것이 섞이어 깨끗하지 못하거나 썩거나 한 물. 예=그 우물 물은 고지랑물이어서 먹으면 안된다.

▲뜰기=채 익지 아니한 과실. 예=뜰기를 먹으면 배탈나기 쉬우니라.

▲듣보기 장사=들어박힌 장사가 아니고 뜨내기로 시세를 듣보아가며 요행수를 바라고 하는 장사. 예=듣보기 장사애말라죽는다.【鎭】

問 신문·잡지등에서 보면 「오시오」와 「오시요」「오세요」와 「오셔요」를 섞어쓰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요?【서울화곡동 김선】

答 ①오시오가 맞고 오시요는 틀립니다. 동사의 어간에 붙는 사역형어미는 「요」가 아니고 「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시오」의 「시오」는 존칭보조어간 「시」에 사역형어미 「오」가 붙어 「시요」로 발음되지만 사역형어미에 쓰이는 공통어미 「오」로 적는 것이 옳습니다.

②「오세요」는 「오셔요」의 「사투리」입니다. 「오셔요」는 「오시어요」의 준말로 여기서의 「요」는 술어끝에 존칭이나 주의를 끌게하는 조사입니다.

신문·잡지등에서 대화에 「오세요」로 쓰는 것은 우리 언어생활에 흔히 오세요로 쓰고 있고 필자의 의견을 존중하

한국현대무용단

동남아지역·유럽을 거쳐 북미주로는 처음 오리엔탈 파레스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읍니다.

바쁘신중에도 친지와 가족동반하셔서 회포를 푸시기 바랍니다.

인기자매 **별자매**

1월24일(월)부터

뉴 서울 공연

529 BLOOR ST. WEST
TORONTO, ONT.

예약전화 533-1500

한국일보
우리의 발길 … 新聞

韓半島안보 美·日협력論議

나까소네日首相 어제 訪美登程

내일 레이건大統領과 會談

◇나까소네日首相

【東京=宋孝彬특파원】나까소네·야스히로(中曾根康弘)일본수상이 美·日간에 빚어지고있는 방위및 무역정책에서의 긴장감을 해소하기위해 17일 하오2시 하네다(羽田)공항을 출발, 訪美길에 올랐다.

나까소네수상은 19일(현지시간 18일) 열릴 레이건대통령과의 美·日정상회담에서 美·日간의 동맹관계를재확인하고 西方의 일원으로 일본의 방위비분담과 市場개방정책을 다짐하는 한편 지난번 韓日정상회담에서 확인된 한반도에대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안보를 둘러싼 美·日협력체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나까소네수상은 오는 21일(현지시간20일) 東京에 돌아오기까지 레이건대통령외에 슐츠국무, 와인버거국방및그밖의 경제각료와 상·하원의 주요인사들과도 만날예정이다.

나까소네수상은 訪美에 앞서 한국을 방문, 韓日관계의 긴밀화를 재확인했으며 美日간의 무역마찰해소를위해 담배등 95개품목에대한 관세인하조치와 조사기술을 對美공여를 결정한바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에대해 쇠고기와 오린지등의 수입자유화와 일본의 1천해리해상방위를 둘러싼 역할분담을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나까소네수상은 訪美를 하루앞둔 16일 美ABCTV와의 회견에서 美·日간의무역에서 보호주의는 배격돼야하며 일본은 결코 군사대국이될 야심이 없다고 밝혔다.

오늘 黨政회의열어

금년들어 첫 黨政정책조정회의가 18일하오 중앙청후생관에서 金相浹국무총리 주재로 열릴예정이다.

立法豫告制 추진

건축·식품위생 관계등 올해안에 實施를 검토

官報등에 게재… 異見제출 할수있게

정부는 立法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시킴으로써 法令의 실효성을 높이는 立法豫告制를 채택할것을 검토하고있다.

대통령令으로의 법제화가 추진되고있는立法豫告制는건축법,식품위생관계법규등 多數의 국민생활과 직접관련이 있는 法令이나 部令의 草案에서 입법취지와 법안내용을 官報등에 공개, 이해관계자가 書面으로 의견을 제출할수 있는 약2주일간의 公告기간을 두어 제출된 의견을 분석, 立法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가 금년내실현을 위해 추진하고있는 입법예고제는 긴급이나 보안을 요하는 경우 또는 내용이 예고까지필요치않는 경우엔 豫告하지않아도되도록 예외를 인정할방침이다. 立法豫告制의 추진과함께정부는 입법의 경제적성과분석제도도 개발키로 하고法令의 立案, 심사과정에서 입법시행의 경제적 성과를분석, 경제성이없는 立法은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법제처는 금년에도정부입법추진계획제도를 강력히추진, 각 部處에서 내는법률안이 年中균등하게 국회에 제출되도록 할 예정이다.

"民主主義투쟁 계속"

政府·與黨은 國會法개정 誠意를"

柳民韓총재, 創黨2돌紀念辭

◇柳致松총재

柳致松 民韓黨총재는 17일 『평화적 정권교체는 하루아침에 이룩될수 없는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여당은 獨走한다는 비난을 불식하도록 민주주의의 토대구축에 성의를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柳총재는이날民韓黨創黨2주년 기념式辭에서 『민주주의의 토착화를위해정부·여당이 한일이 무엇이 있는가』고 反問하고 『정부·여당은 국회법, 지방자치법, 언론기본법의개정과 정당의균형있는 경쟁체제에 성의를 보일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은 흔히 개혁의지를 내세워 국민적요구를 외면하고있다』면서 『국민은 정부와 여당이 내세우는 口號와 오늘의 현실이 얼마나 동떨어진것인가를 실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柳총재는 또 民韓黨의 진로와 관련, 『국민을 代辯하는데 제한이 있을수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아무리 외면당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제 더욱 단결하여 受權정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발걸음을 재촉할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상오9시 汝矣島중앙당사에서 열린 民韓黨創黨2주년기념식에는 소속의원과 당원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국민總裁 제청위해 黨務會議 24일소집

국민당당무회의는 17일 오는 2월3일 상오10시 世宗文化會館별관에서 정기전당대회를 열기로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결정을 승인했다.

이날 당무회의는 또 전당대회 代議員자격문제등 黨憲개정에필요한 사항은 이번전당대회때 손질을하되 이의실시는 다음전당대회때부터 적용하기로 한다는 有權解釋을 내리고 총재후보를 제청하기위한 당무회의를 오는24일에 갖기로했는데 金鍾哲현총재가 단독제청될것으로 확실시된다.

진급 李基百대장등 全대통령이 계급장

全斗煥대통령은 17일 하오 청와대에서 육군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李基百참군과 육군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黃仁秀, 鄭哲洙, 安弼濬장군으로부터 진급및 補職신고를 받고 계급장을달아주었다.

全대통령은 또 육군참모차장으로 임명된 金洪漢중장과 補職이 바뀐 張正烈, 李相薰, 鄭振權중장으로부터 각각 補職신고를 받았다.(사진) 이자리에는 尹誠敏국방장관과 黃永時육군참모총장이 배석했다.

全대통령 施政연설

오늘 임시國會

국회는 18일 제1백15회 임시국회를 열고 全斗煥대통령의 새해國政전반에 관한 연설을 듣는다.

全대통령의 國政연설은 KBS·MBC등 TV와 라디오로 전국에 중계방송된다.

就業制限에 違憲論 運營委 결론못내

국회는 17일하오 運營委를 열어 국회사무처가 마련한公職者 倫理委員규칙안을 심의했으나 就業제한 규정등을 둘러싸고 違憲論이 제기돼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7人小委를 구성, 계속 심의키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의원들은 규칙안중 국회의원의 就業제한규정은 의원의 職權濫用등을 제한하고있는 헌법과 국회법등에 이미 규정되어있어 이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락衛星 위험없다"

原子爐 내달中旬 대기권에 재돌입

타스 첫發表

【모스크바AP UPI=聯合】지구로 추락중인 소련핵추진 첩보위성 코스모스1402호의 원자로는 오는 2월중순께 대기권에 재돌입, 불에 타 완전히 없어질 것이며 따라서 지구에 아무런 위험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소련관영 타스통신과 당기관지 프라우다가 15일과 16일 각각 보도했다.

타스통신과 프라우다는 모스크바물리학 기술연구소소장 올레그·벨로체르코프스키의 말을 인용, 코스모스1402호의 주요 동체부분은 이달말께, 그리고 핵연료를 담고있는 원자로는 2월중순께 대기권에 재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련측이 코스모스1402호의 대기권재돌입예상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타스통신과 프라우다는 또 만약 지구에 방사능낙진이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 방사능보호위원회의 안전기준치를 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이것이 생물체에 별다른 위험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墜落하면 損賠청구등검토

외무부

외무부는 현재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 소련정찰衛星코스모스호가 한국에 떨어지는 경우에대비, 소련을 상대로損害賠償을 청구하는 문제를사전검토중에있다.

외무부의 한관계자는 17일 『衛星의 우리領空통과및 영토에대한 위험은 주권침해이며 이에대한 侵害國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다』면서 『특히 核물질과 관련된우주에서의 행위에대한 行爲國의 책임은 절대책임이라는것이 국제법의 일반원칙』이라고 말했다.

「張吉山」오늘부터 7면에

◇17일국회運營委에서 국회公職者倫理委규칙안을 놓고 異論이 제기되자 與野총무들이 즉석鳩首회의를 하고있다.

陸軍참모차장에 金洪漢중장 임명

(사진)金洪漢중장

정부는 제33대육군참모차장에 金洪漢중장을 19일자로 임명했다.

◇약력 ▲부산출신·53세 ▲대대장▲연대장▲국방부총무과장▲사단장▲인사운영감▲육본인사참모부장▲군단장

올公舘長會議 폐막

經濟外交 강화키로

금년도 제1차 在外공관장회의가 17일 종합토의를끝으로 폐막됐다.

亞洲·美洲·中東및 아프리카지역공관장 50명이 참석,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이번회의에선 ▲非同盟 유엔대책 ▲경제협력및 통상진흥방안 ▲문화및 체육교류증진 방안 ▲僑民대책등 금년도 우리나라 對外활동방안이 전반적으로 검토됐다.

이번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이날 종합토의를 마친 후 폐회식에서 ▲경제외교를 통해 통상증진과 경제협력증진, 특히83년도 수출목표달성에 만전을기함으로써 지속적 경제성장을 통한 복지국가건설에 선도적역할을 수행한다 ▲우리의 南北대화再開및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에 대한 폭넓은 국제적지지, 특히 제3세계에서의 지지획득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외교기반을 확고히 한다는등 4개항을 決議했다.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英에 怪불덩이落下

【리딩(영국) AP=聯合】하늘에서떨어진 이상한 불덩이의 타버린잔해를 영국 내무성과학자들이 조사하고있다고 17일 밝혔다.

직경이 약 30cm인 이불덩이는 런던서쪽 36km의 리딩시 교외들판에 떨어지는것이 16일목격되었으며 이운석은 떨어지자마자 목초지에 화재를 일으켰다고 이관리들은 말했다.

경찰과 소방서원들은 나중에 전선이 붙어있는 타버린 원추형 물체를 발견했다.

그러나 이 당시 경찰대변인은 이물체가 외계에서 온 것으로는 생각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3黨총무 합의

2월말께 임시國會 3黨代表 연설청취

民正、民韓、국민당등 3黨총무들은 17일 하오 총무회담을 갖고 오는 2月末께 3월초께 黨대표의 새해基調연설을 듣기위한 제1백16회 임시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李民正총무는 이날 『오는 2月末께 제1백16회 임시국회를 열자는데 의견을같이했으나 會期를놓고 異見이있었다』면서 『民正黨의 지구당개편대회사정관계로 短期국회가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측은 3黨대표基調연설과함께 정부부처의 현황청취를위해 會期는 15일정도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社會漫評

事故가 나야만 조사하기로…

地平線

『선진국될 날이 멀지않다』는 것은 70년대에 유행한말이었다. 외국 빚을 얻어 공장을 짓기만하면 어렵지 않게 물건을 만들어수출할수 있었던 시절의 유행어다. 그러나 가까운 이웃 일본과 비교해 보면 지나친 과대평가에 얼굴이 붉어질 것이다.

「한국은 어디까지 왔나」하는 논문은 80년4월 일본의 아시아 경제문제연구소 服部연구원이 발표한것이었다. ▼服部의 논문은 인구·경제·사회·교육등 각분야의 20개항목에 걸친 통계숫자를 비교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수효는 한국이 일본의 30년전수준, 자동차보유량·발전량·강철생산량·알루미늄생산량등은 모두 20년이상 뒤졌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고있는것은 20개항목가운데 쌀과 텔리비전 생산량뿐이었다. 우리의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있다.

▼그러나 「수준」이 어느정도냐 하는것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운일이다. 그중의하나로 근로자한사람이 얼마나생산하는가를 따질수있다. 소위 「생산성」의 비교다. 80년도의 한연구에 의하면 역시미국이 가장높고,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서독의 차례다. 그 다음으로 일본과 이탈리아가 같고, 이어서 영국이다. 미국의경우 일본보다 50%나 앞서있다.

▼카메라와 전자제품으로 세계시장을 휩쓸고 있는 일본이 자동차로 미국을앞지르자 일본의「일본경계경보」가 울리고있다. 미국의 국제경제예측회사에 의하면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80년대내내 미국이나 유럽을 앞지를것이라고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새뮤얼슨은 서기2천년에는 일본의국민소득이 미국을앞지르고, 경제규모도 소련을앞질러 미국다음가는 세계2인자가 될것이라고 보고있다.

▼미국 상무성의 상업담당차관보 라이어넬·올머는『미국의 방위 체제가 90년까지에는 일본의 첨단기술산업에 의존하게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있다. 그는 미국의 첨단기술산업이 정부의강력한 지원을받는 일본의 첨단기술산업에 위협받고있다고 작년11월 경고했었다. 그는 반도체, 전자통신장비 그리고 컴퓨터산업을그 예로 들고있다.

▼길이 2cm 5mm에 6만4천비트의 기억용량을 갖는 64K램의 실리콘·칩은 미국이 개발했지만 일본이 세계시장의 50%이상을 지배하고있다. 올머의 경고가 사실이 될수도있음을 알수있다. 14일 일본은 무기금수원칙을 깨고 미국에 컴퓨터와 로보트, 그리고 광학섬유통신기술을 수출한다고 발표했다. 세계 무기시장에 뛰어들 채비라고도 볼수있다. 일본을 과대평가할것은 없지만, 그반대도 경계할 일이다.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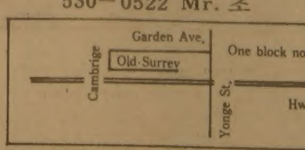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MARVIN STAR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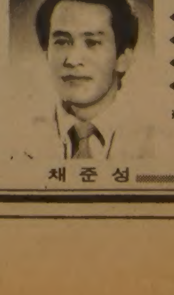
〈취급종류〉
▲소형차: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 의 문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gnment Certificate 소유

부산대학교동창회
신년파티
일 시: 1983년1월30일(일) 오후6시
장 소: 175 Old Surrey Lane 〈Richmond Hill〉Hwy7 북쪽
연락처: 731-0460 Mr. 김
530-0522 Mr. 조


부산대학교 동창회

목사님 청빙
본교회는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 복음신앙에 굳게 선 교우들이 모여 아름다운 소망중 충실히 성장해 가고 있읍니다.
오셔서 굳센 소명감을 갖고 목회하실 뜻을 가지신 분은 아래와같이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격: ① 정규 신학과정을 마치고 교단을 통해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
② 가능한대로 이중언어(한국어·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
대 우: 목회의 내용에 따라 교회의 결정 예산에 준함.
구비서류: 이력서와 사진1매를 83년 2월말까지 제출.
연락처: Korean Toronto Church (In St. John's United Church) 2 Nobert Rd. Agincourt, Ont. M1T 1C1
Phone: 416-494-5007 416-226-9794
한인토론토교회
교역자청빙위원회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전 화: (B)(416) 497-8900
(R)(416) 633-7892 (David Chae)
*주택·대지·상가·사업체·투자처·아파트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알선.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채 준 성

美、"對蘇核戰서 必勝"

國防省 비밀文書 防衛力증강 5년계획

紛爭땐 中共을 同盟으로
外界전쟁의 준비도 갖춰

【워싱턴UPI=聯】「1984~88회계연도 방위지침」이라는 제목이 붙은 미국방성의 방위력증강 청사진은 對蘇핵확전에서의 승리와 외계와의 효과적인 전쟁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촉구하고있다.

총1백36페이지짜리의 이 비밀문서는 UPI통신이 방위문제에 정통한 소식통들로부터 입수한것으로 지난해5월과 6월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등 두 일간지에의해 일부내용이 공개된바 있다.

「1984~88회계연도방위지침」은 캐스퍼·와인버거 미국방장관이 지난해 3월22일자로 서명한 비망록을 수반하고 있으며 향후 5년동안에 걸친 미군사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10년간에 걸친 미군사정책의 전반적인추세에 관한 국방성과 국가안보회의의 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이 비밀문서의 핵심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對蘇 핵관전에서의 승리에 필요한 준비를 갖춰야한다.

▲외계와의 전쟁에있어 군사력투입및 효과적인 전쟁수행을 위한 준비를 갖춰야한다.

▲소련이 페르시아만 유전지대를 침공할경우 미·소양국간에 중대한 분쟁이 촉발될것이며 이때 중공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합세, 소련에 대항하게 될것이다.

▲미군이 일부 전선에서 소련군과 무기한 전투를수행하는데있어 필요한병력및 장비조달을 가능케하는 원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對위성무기는 81회계연도까지 작전능력을 갖춰야한다.

▲필요할 경우 미국은 군비통제없이 對소 힘의균형을 재편성하여 자체안보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MX미사일의 지상배치를 선택하려할 경우 對탄도미사일(ABM)조약의 수정은 불가피하다.

美의 中南美정책비난
비동맹운동 調整委회의 폐막聲明

【마나과AP=聯】니카라과의 마나과에서 15일 폐막된 비동맹운동 조정위회의는 미국의 對중남미 외교정책과 이스라엘의 중남미 우익국가들에 대한 무기판매를 비난하는 한편 회원국들에대해 백인지배하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관계를 단절하도록 촉구하는 64개항의 마나과성명을 채택했다.

비동맹국 외상등 1백8명의 대표들은 이날 폐막성명에서 특히 미국의 對쿠바·니카라과및 엘살바도르 정책을 강력히 비난했으나 일부온건파대표들의 요청에따라 앞서 주최국 니카라과가 작성했던 초안보다는 반미론조가 다소 약화된것으로 알려졌다.

「마나과성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중남미 개입정책에 이스라엘을 이용하고있으며 이스라엘은 중남미국가들에 무기를 판매하고있다.

▲니카라과 쿠바 아르헨티나 그레나다및 최근에는 수리남에 대한 압력과 경제제재가 가중되고 있다.

▲미국은 니카라과와의 대화와 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니카라과를 겨냥한 조작적인 경제불안정화운동이 진행되고있다.

▲니카라과는 평화정착을 위해 미국및 온두라스와 직접 대화할 용의가 있다.

佛 前衛화가, 金日成의 千의 얼굴 풍자
地下창고의 金日成책자 이용
칼질·먹칠… 冷笑의 모자이크

파리의 한 전위화가가 북한의 붉은선전책자속에 있는 金日成사진을 소재로 金日成독재정권을 풍자하는 작품1백여점을 만들었다.(사진)

바질·비뉴씨는 81년 몽마르트르 언덕밑 공동묘지부근에 아틀리에를 새로얻어 이사하던중 지하실 창고에 쌓여있는 1만여권의 「金日成-혁명과 건설」이라는 불어판 선전책자를 발견했다.

파리의 「아시아·아프리카」출판사가 펴낸 모두 2백83페이지에 달하는 이책자는 누군가의 실수로인해 지하실에 사장된것이었다.

바질·비뉴씨는 처음에 이책자를 보고 놀랐으나 곧이어 전위화가로서의 발소와 풍자본능을 발동시켰다.

가위와 칼로 金日成의 사진을 오리고 그위에 다른 모형을 붙이는가하면 사진위에 먹칠을해 마음껏「反共축제」를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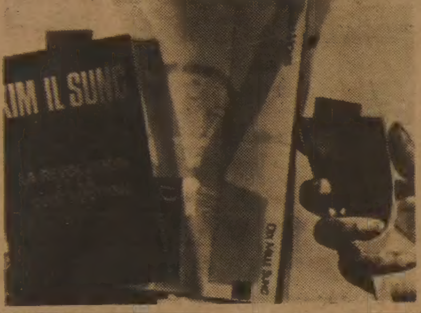
사진위에 돼지머리를 섞고로 만들어 붙이기도 했고 金日成얼굴에카이제르수염을달고 흰가발을 씌우기도했다. 목에 지퍼를 채운 金日成, 혀를 내민 金日成, 다리를 입에문 金日成등 金日成의千의얼굴이 풍자되었다.

바질·비뉴씨는 金日成이그저 북한공산주의독재자라고 막연하게 알고 있었을뿐이었다. 그러나 자유와인간을 작풍소재로 추구하는 그에게기만과 허위에찬 金日成사진은 증오와 혐오와 풍자본능을발동시켰다.

그는 작년말 파리에서 열린 국제비디오페스티벌에 선전책자 3천권을붙여놓고 자신의 金日成풍자작품이 담긴 비디오를 상영, 큰인기를 모았다. 악뒤엘誌와 리베라시옹등 신문잡지가 이를 보도하기도 했다.

바질·비뉴씨는 자신의金日成풍자작품을 디·밀·성(불어로 1만의 金日成)이라 이름붙여 마지막까지 金日成을 풍자하는걸 잊지 않았다.

그는 곧 파리의 좀더큰 장소를 빌어 金日成풍자 전시회를 본격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제네바=聯】



英、美크루즈配置 강행
대처 對蘇위협 대책밝혀

【런던路AP=聯】마거리트·대처영국수상은 16일 소련은 빈틈없고 강경한 세력이라고 경고하면서 서방국가들에 동구권의 침공위협에 대비, 방위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영국은 국내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군사력증강에 대처하기위해 美크루즈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처수상은 이날 1시간여에걸친 민영 인디펜던트TV(ITV)와의 회견에서 국내의 반핵운동과 관련, 서방측의 일방적인 군사력약세가 전쟁발발위험성을 한층 높여줄것이라면서 반핵주의자들을 이해할수없다고 말했다.

◇16일 눈보라와 짙은안개속에서 앙카라 에센보가공항에 착륙하려다가 충돌사고를 일으킨 터키항공사소속 보잉727機의 파손된機體. 【앙카라17日UPI電送=聯】

사망46명 부상21명
터키旅客機추락 충돌사고

【앙카라AP=聯】승객60명과 승무원7명을 태우고 16일밤 앙카라의 에센보가 공항에착륙하려다 추락한 터키제트여객기의 사상자수는 사망46명, 부상21명으로 최종공식집계됐다.

사고가난 보잉727여객기는 이날 눈보라로 시계가 흐린가운데 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 기체가 두동강이난채 동체의 뒷부분이 화염에 휩싸였으며 앞부분은 50m밖으로 튕겨나갔다.

이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살아남은 한부상자는 비행기가 2~3번 튀어오른다고 느끼는순간 거대한 폭발음과함께 비행기가 두동강이 났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비행기동체의 뒷부분에서 26구의 시체가 발견됐으며 부상자들의 대부분은 동체의앞부분에 있었다.

얼굴
金洪漢 육군참모차장
戰術개발에 능한 智略家

6·25가 일어난 50년12월 종합학교9기로 임관, 휴전까지 소총소대장으로 싸웠고 또 猛虎1연대1대대장으로 월남전에 참전했다.

최근까지 군단장으로 공세적작전계획을 발전시켰으며 응용전술지휘론이란 책을써서 예하지휘관들에게 나눠주기도했다. 82년 팀스피리트훈련중 지상군부대장을 맡아 미국정부로부터 공로훈장을 받았다.

야전지휘관과 인사분야 참모직을 번갈아 역임한 탓으로 전략과 인사관리에 두루 밝다는 평을 듣고있다.

부산商高와 東亞大법대를 졸업했다.

35살에 늦게 결혼, 부인 李貞順여사(51)와 준구(18·汝矣島高)와 성우양(16·藝苑中)등 남매를 뒀다.

尹誠敏국방 禮訪
새韓·美야전사령관

제임즈·B·보트중장의 후임으로 한미야전군사령관에 임명된 루이스·C·메네트리 미육군중장(53)이 17일 국방부를 방문, 尹誠敏국방장관과 환담했다.

16일 내한한 메네트리중장은 미육군보병4사단장과육군본작전참모부 소요처장등을 역임했다. 취임식은 1월말께 있을예정.

動資部 기획실장 尹承植씨를 임명

정부는 17일 動力資源部기획관리실장에 尹承植전력국장을 승진, 임명했다.

人事異動

商工部 ▲長官秘書官직무대리 劉永祥▲亞洲通商課長 趙允寬▲窯業製品課長 李根弘(17일字)▲依願免職 益煥

農水産部 ▲糧政국장 李東培(농업정책국장)▲농업정책국장 李炳淅(糧政국장)▲농수산통계관 李東雨(본부)▲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 沈鉉燮(국립種畜場長)▲依願免職 金成昊(농촌경제연구원)(17일字)

動資部 ▲전력국장 崔鍵頌(감사관)▲감사관 金炳庸(본부)(17일字)

本社來訪

▲鄭鎭吉의원(民韓)▲司空壹씨(韓國産業經濟技術研究院院長) 新任人事次

記者의 눈
李喆洙와 하야까와

李喆洙씨(30). 미국의 샌퀜틴교도소가스실분턴까지 밀려갔던 동포청년의 이름이다.

그가 만일 살인누명을 벗지 못하고 끝내 처형되었더라면 아무도 기억조차하려들지않았을 이름이다. 그리하여 그의명과함께 영원히 묻혀버렸을 이름이다.

19세 홍안청년에서 살인범, 사형수로 쫓겨오는 운명을 한몸으로 체험해야했던 이철수라는 이름은 이제 한번에 불멸의 너울을 벗게되었다. 李喆洙. 그는 멀잖아 자유의몸이 될것이고 민권투쟁의 한상징으로 오래오래 기억될것이다.

인종적 편견이 法이전의 문제로 여전히 깔려있는 미국사회에 소수민족이 어떻게 인습과 편견을 돌파해 살아갈것인가를 짚어볼수 있는 본보기로 이철수의 이름은 떠오를것이다.

이철수救命은 어쩌면 미국사회에 자주 거론되는 하야까와의 신화와 대비될지 모른다. 새뮤얼·하야까와는 지난11월에 은퇴한 일본계 상원의원, 3선관록까지 쌓았고 막강한 外交委 소위원장으로 對韓 정책에도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하야까와씨. 그의 팔 하나는 義手가 대신하고있다.

하야까와씨는 2차대전중 유명한 442부대의 일원으로 이탈리아 전선에 나가서 한팔을 잃었다. 442부대라면 일본계만으로 편성되었던 특수부대. 진주만 공격후 모두 敵性시민의 낙인이 찍혔던 일본계가 미국에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자원입대해서 급조된 부대였다.

용맹을 떨쳤던 이부대출신들은 終戰후 잘라진 팔다리를 내보이며 일본계의 지위향상에 앞장섰다. 오늘날 美연방 상·하원에 6명이나 일본계 의원이 진출, 본격적인 정치참여를 하고 일본계 발언권을 높이게 된 것은 말하자면 그한 피의 代價이다.

이철수 사건은 교도소밖에서 60만동포들이 벌인 끈질긴 투쟁이올린 凱歌다. 이철수의 무죄를 민권운동으로 차원높게 동포들이 전개하였으므로 일본계 중국계등 비슷한처지의 동양계소수민족들의 호응도 얻었다.

또 이철수사건과 꼭같은 케이스를 40년전에 체험했던 멕시코系의 지원도 받았다. 멕시코系가 그 체험을 토대로엮은 드라머 주트수트가 여러해째 LA와 뉴욕극장에 상영되는 시기에 이철수가 재심을받았던것은 다행이었다.

같은 복역수이면서도 백인이 우월하다는것을 과시하기위해서, 특히 동료 멕시코系 복역수를 겁주기위해서 이철수에게 칼을들이댔던 니드햄·하나의 儀式살인극에 애매하게 표적이되었던 이철수의 옥중살인은 자기방어를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 그런결론을 6년도넘는 세월을보낸끝이지만 미국법이 내린것은 그래도 다행이다.

하야까와의 신화가 일본系만을 위한것이라면 이철수가 옥중에서보낸 10년세월은 東洋系모두를위한시련으로 평가받게되었다는것이 돋보인다. 【金炳武기자】

社說

關心 큰 經濟운용計劃
—不確實性과 內資문제 克服이 열쇠

올해 경제운용은 이미 책정돼 있는 계획指標에만 구애될것이 아니라 安定成長방향에서 內外여건에 맞추어 탄력적인 시행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와 民正黨은 정부가 들고 나온 「83년도 경제운용계획」수정안을 중심으로 黨政間의 정책조정협의를 거듭한 끝에 ①현행 金利수준을 그대로 유지키로하고 ②경제成長정책에 걸맞는 신축적인 통화공급을 꾀하기로 합의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부·與黨사이에서 경제운용방침에 관하여 부분적으로나마 修正을 가할것에 합의를 보게된 背景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올해 국내경제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데서 비롯된것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物價는 낮게 成長은 높게 책정하고있는 것이다.

그것은 정부가 당초 試案에서 올해 도매물가상승률을 5%, 소비자물가를 6%로 잡았던것을 불과 한달남짓해서 이를 다시 2~2.5%및 3~4%로 각각 낮춰잡은 것으로도 알아차릴수 있다.

동시에 내외與件으로 미루어 올해 경제성장률이 7.5%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것은 수긍되는바이지만 이를 뒷받침해야할 통화공급계획등에 결함이 있지않은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것이다. 정부가 지난해의 경제운용실적이 예상외로 양호한데서 자신을 얻은듯 올해에도 물가안정속에 높은 성장목표를 쉽게 달성할수있을것으로 내다보는게 아니냐하는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지난해에는 세계경제의 유례없는 침체속에서도 우리경제만은 6%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면서도 도매·소비자물가는 모두 한자리 숫자인 5%이내에서 안정되었던게 틀림없다.

그러므로 지난해의 물가안정 정착에 더하여 올해에도 국제原油價의 안정내지 反落까지 내다볼수있고 국제原資材價 역시 상승要因이 없는만큼, 국내물가는 상승할 까닭이 없다고 보는것이다.

또한 경제成長面에서도 올 下半期로 예상되는 국제경기의 회복에 의한 輸出好調예상과 아울러 中小企業중심의 內需振作, 建築활동의 上向추세같은것을 고려할때 7.5% 정도의 실질성장은 무난하리라고 보는것이다.

우리 역시 이같은 낙관적인 올해경제전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視角을 같이 하는바이다. 그 理由는 설령 선진국경기가 불투명하다고 하더라도 실업자해소를 위한 景氣자극시책이 기대되고 있어, 이것이 세계交易增大에 기여하게될것이고 OPEC(산유국기구)의 步調不一致로 인한 油價下落과 국제原資材價의 안정, 국제金利의 하락경향도 예상되기때문이다. 이렇듯 대외적 與件만을 생각할때 낙관할만한 근거는 충분하다.

그렇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不確實요소가 허다할뿐더러 대내사정에도 적지않은 안정저해요소들이 도사리고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예컨대 債務過多國문제를 둘러싼 국제금융통화면에서의 不安요인과 벌써부터 경기회복을 노리는듯한 투기적인 국제原資材價의 반등경향이 일고있는것등을 가볍게 볼수 없는 것이다.

동시에 선진국의 개연적인 수입규제조치가 한국같은 中進國의 수출伸張을 가로막게될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內需振作의 한계성과 內資動員의 隘路를 지적치 않을수 없다.

물론 그동안 국민경제에 二重的인 부담이 돼오던 重化工業投資가 이제부터 생산創出과정에 들게되고 수출에 기여하게 되리라는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전면적인 수출경기의 회복이 없는한, 아직도 품질가격면에서 국제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우리수출의 안이한 好轉을 크게 기대할수 없으며 따라서 輸出과 직접간접적으로 연계돼있는 中小기업의 稼動실적 또한 스스로 한계가 있다고 보는것이다.

보다 중요한것은 안정적인 성장통화의 공급을 가로막고있는 갖가지 애로要件들이다. 실상 지난해 6%성장을 달성하게된 배후에는 농업의 기여와 아울러 6·28低金利정책 및 28%(총통화)에 달하는 팽창적인 통화공급이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봐야한다.

그러나 지금같은 금융 통화사정아래서 올해에도 그같이 방만한 통화공급을 거듭할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이에 비추어 볼때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성장통화를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올해경제운용의 成敗를 가늠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제子女를 亡치는 悪德
—청소년脫線 유흥業所를 규탄함

警察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범죄 41만2천2백72건중 청소년범죄가 18%(7만2천6백25건)를 차지하고있다. 이는 전년에비해 27.9%나 늘어난 것으로 例年평균 청소년범죄증가율 7.2%의 4배가까운 수치를 뜻한다. 특히 살인·강도·강간·방화같은 그들의 強力사건은 단순한 動機나 일시적 욕구충족을 위한것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서울市警은 올해를 청소년 자율질서정착의 해로 정하고 脫線非行청소년과 이들을 유혹해온 각종업소를 뿌리뽑으려는 종합대책(한국일보 16일자 11면보도)을 마련했다한다.

물론 범죄의 예방이란 단속강화나 처벌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증가일로하는 청소년범죄와 凶暴化를 좌시할수 또한 없는만큼 경찰당국의 노력에 좋은 결과있기를 우선 바란다.

또 그를위해 우리는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있는 이른바 「청소년유흥업소」경영주들의 올바른 意識과 자세를 촉구해두고 싶다. 해당업주들은 그업소에 드나드는 청소년들을 「남의 아이가 아닌 바로 「우리아이」로 생각하고 보살펴야 할것이다. 문제아들이 사라져야 내자녀도 바르게 자랄수있다는 인식을 이기회에 새롭게 해달라는 것이다. 일부에서처럼 돈벌이에만 血眼이되어 푸른 希望의 기탁처인 청소년들을 「惡의 함정」으로 유혹한다는것은 社會倫理上 용납될수없는 행위이다.

청소년범죄는 또한 순간적인 충동이 動因이 되는만큼 사회는 그들이 비뚤어진 心理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價値觀확립에 힘을 보태야한다. 예컨대 사기수법을 쓰거나 「한탕주의」로 돈을 우려모아 물쓰듯 하려드는것 등이다. 또 凶器를 휘둘러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고도 罪責感을 느끼기는 커녕, 마치 자기가 「強者」나 된것처럼 錯覺하는식의 그릇된 風潮 따위다.

이를 모두 뿌리뽑자면 家庭·學校·社會·國家가 一體가되어 周圍환경정화에 더욱 注力해야 하겠다. 아울러 犯人을 영웅화하는것 같은 일부 低質公演物에 대하여도 적당한 기준에서 제동을 걸 필요가 있을것이다.

특히 過勞와 불우때문에 挫折感을 느끼기쉬운 근로청소년들이 自暴自棄로 惡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일이없도록 해당 기업주들은 그들과 항상 人情어린 對話를하며 처우를 잘 하여 건실한 전도를 그들에게 안겨주었으면 한다.

하나 뭐니뭐니해도 문제청소년선도엔 부모의 사랑과 스승의 올바른 가르침이 가장 요긴하다. 따라서 부모와 스승은 말로서가 아닌 행동으로 훈도의 道理를 다해야한다. 오늘날 아버지나 선생님을 닮지않겠다는 학생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家庭의 불화가 동기로되어 家出하는 청소년들이 적지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자녀들의 적성과 能力을 도외시하고 一流校로 진학하라고 다그치는 부모들의 지나친 기대도 그들의 탈선원인으로 작용하고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그들의 지배자가 되려고하기에 앞서 마음을터놓고 고해줄 相談者를 아쉬워하는 자녀들을 독립된 한 人格體로 존중, 그들의 감정을 향도해 주어야 할것이다. 특히 思春期를맞은 청소년들의 범죄 動因이 되기쉬운 性문제만 하더라도 윤리또는, 책임 문제까지 곁들인 정확한지식을 심어주어 충동을 극복하는 지혜와 정신력을 기르게할 필요가 있다.

대개 범죄의요인은 복합적이다. 학생들의 머리형과 校服의자율화가 青少年유흥업소의 弊風과 무관하다고는 할수없다. 그렇지만 근래 청소년범죄가 느는일은 공업화·도시화가 촉진되는 가운데 낡은 價値觀이 흔들리고 새로운 價値觀은 아직 定立되지못하고있는데서 비롯된 일면도 있는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선도대책도 다각적이어야한다. 학교교육을 더욱 內實化하고 원만한 家庭을 꾸려나가며 일체의 사회부조리현상을 추방, 청소년들의 현실 감각과 정서를 순화시키는것은 그 근본이다. 이것이 곧 그들의 潛在力을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한 바람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에게 그들을 제대로 발산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 늠름하고 전도양양한 青少年들이 배출되도록 인도할일 또한 잊어선 안될것이다.

政局往來

◆비위에 거슬릴때 탄압소지 있어

17일하오 국회運營委는 국회公職者 倫理委운영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의하면서 의원들의 就業제한규정 이 국회법정당법등의 의원倫職정신에 배치되고 정치적 惡用소지를 우려.

이날 李致浩의원(民正)은 「退職前2년내」의 취업제한규정(4조1항)에 대해 『이는 범죄행위를 윤리규칙에 담으려는것』이라며 『의원의 職權濫用및 非行은 국회법 형법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의원의 취업제한규정은 빼야한다』고 주장.

또 趙重衍의원(民韓)도 『의원은 개개인이 정치발언을 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의원의 獨立性을 내세웠고 朴寬用의원(民韓)도 『윤리위의 人的구성여하에 따라 정치적 악용 가능성은 있으며 비위에 거슬릴때 야당을 탄압하는 소지가 있는게아니냐』고 따졌다.

이에대해 李鍾贊운영위원장은 『나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이 윤리위원으로 참여하는것이 좋은지 나쁜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는데 앞으로 이문제는 7人小委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의원은國政에관한 큰얘기해야

民正黨은 17일상오 당직자회의와 중앙집행위를 잇달아 열고 오는20일부터 시작되는 지구당 개편대회 행사계획을 최종점검.

權翊鉉사무총장은 이자리에서 『소속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가 사소한 지역사업을 자기가 했다는등의 얘기를 하고다니는데 의원은 國政에 관한 큰얘기를 해야지 특정지역의 지역사업을 과시하고 다니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지구당사무국장도 의원들이 지역사업을 과시하지 않도록 평소에 지구당위원장을 잘보좌해야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의가 끝난뒤 金瑢泰대변인은 『지구당개편대회를 지원하는 대표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총무, 기타당직자반등 5개반은 現地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표하게될것』이라고 豫告한후 『外遊계획이 취소된 丁來赫의장도 4~5개지구당대회를 지원케 될것』이라고.

"역사의 進路를 누구도 가로막지 못함을 우린 잘 알고있다"

◆民韓創黨 기념식 10분만에 끝나

17일상오 汝矣島중앙당사에서 거행된 民韓黨創黨2주년기념식은 당직자와 소속의원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여분간 간소하게 진행됐다.

柳致松총재는기념사에서 『2년前 우리는 戒嚴下에서 창당작업을 하는 정당사상 유례없는 고난을 겪었다』면서 『그래도 우리는 정통 민주세력의 血脈이 끊겨서는 안되겠다는 비장한 결의속에서 외롭게 출범했다』고 회고.

그는 이어 『어느 누구도 역사의 進路를 가로 막지 못한다는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난 2년을 냉엄하게 평가하여 오늘의 결의를 새롭게 하는한편 내일의 좌표를 정확하게 결정해나가자』고 강조.

기념식은 柳총재의 기념사에이어 黨간부들이 축하케이크를자른뒤 金俊燮전당대회 의장의 「민주長征」을 다지는 만세 삼창으로 끝났는데 이날 民正黨 총재인 全斗煥대통령 丁來赫국회의장 金相浹국무총리등이 화분을 보내 축하했다.

◆필요부분고치되실시는다음大會

17일의 국민당당무회의는 오는 2월3일의 全黨대회일정을 승인한뒤 黨憲개정여부를 싸고 說往說來한끝에 『필요한부분은 改正하되 그실시는 다음全黨대회부터로한다』는 便法을 채택.

이날 회의에서 申喆均사무총장은 현黨憲중 ▲대의원「在籍과반수찬성」으로 되어있는 총재선출조항을 「在席과반수」로 고치고 ▲全黨대회延期조항을 삽입하고 ▲중앙위원에 대의원자격을 부여하는것등을 골자로한 改正의 필요성을 보고.

이에대해 趙一濟 李聖秀의원등이 『이번 全黨대회는 黨의 단합된 모습과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위해 현행 黨憲으로 치러야 한다』고 반대.

JAPANESE RESTAURANT MIKA
みか
⊙일본요리 ⊙냄비우동 ⊙튀김 ⊙사시미
⊙월~금 : 점심 12~2:30 저녁 6~10:30
⊙토~일 : 저녁 6~10:30
2750 Danforth Ave (at Dawes Rd.) Toronto
Tel: (416) 698-0283

GOLDEN CHINA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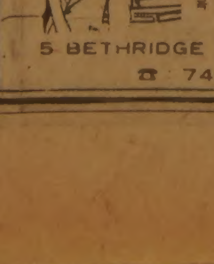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큇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 Eglinton / Keele / Bathurst / Bayview / Bloor / CHINA HOUSE

한국인이 경영하는ㅁ홍콩 스타일 전문
Rose Garden Restaurant
■Free 주차장
■각종 술 full-licence 취득
■주문시 배달합니다.
■매일(년중무휴)
⊕ 오전 11:30~새벽 1:00까지
Bathurst / St. Clair / Vaughan
538 St. Clair W. (세인·클레어×배다스트)
656-0456
유 창 준 654-6609

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HAMAMOTO
Authentic Japanese Cuisine
○일본요리
스시, 사시미 덴뿌라.
○소단체 예약 환영.
○Take out도 합니다.
■술 면허 있음.(LLBO)
Dalecliff Plaza
221 Ellesmere Road, Scarborough, Ontario
(just west of Warden) Telephone: 444-2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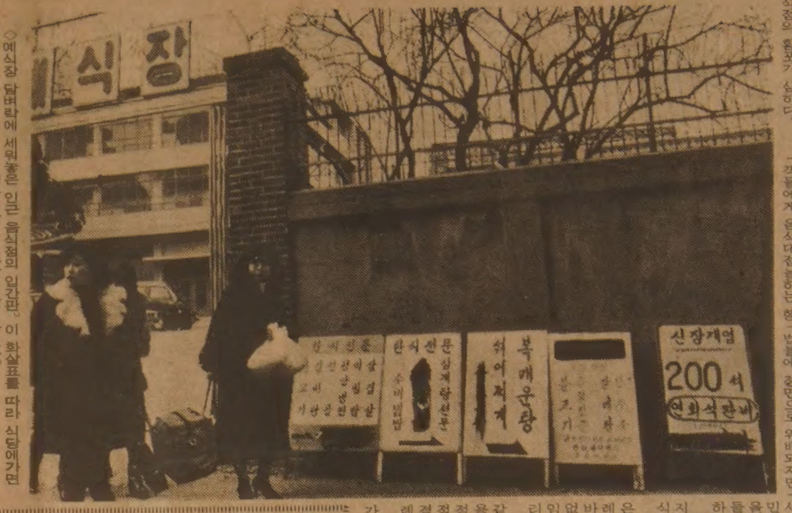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드리는
한인식품
한인에 필요한 식품 생활필수품 일체
연중 무휴 아침10시부터 밤10시까지
시내 전역과 근교 무료배달
401 / 427 / Martin Grove Rd / The West Mall / Rathburn Rd / Holiday Dr / Burnhamthorpe Rd / The East Mall / 한인식품
15 West Deane Pk. Dr. (east mall Plaza)
Etobicoke Tel. 622-2643 대표 손덕수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화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금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YAMAHA
건반악기 Porta Sound
Beginners sound great in minutes.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LUCAS YUM 윤 호 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ALLEN DUMA

바가지·量속임·비좁은방·不親切
禮式場주변 음식점 횡포
市中보다 2~3백원 더받아
음료수·술등 자기집것 強要



◇예식장 담벼락에 세워놓은 인근 음식점의 입간판。이 화살표를 따라 식당에가면 염치없이 바가지·불친절및 양속임등의 횡포가 기다리고 있다。

예식장주변에 모여있는 음식점의 횡포가 심하다。

결혼식때 음식점을빌어 하객들에게 음식대접을하는 행위는 현행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되지만 수많은 혼례손님접대를 집에서 치를수 없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예식장주변의 음식점을빌어 가까운친척이나 친지들에게 간단한 음식을 대접하는게 요즘 유행이다。

따라서 예식장 주변에는 지난수년이래 한식과 중국음식점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 음식점들은 좁은방에 많은 손님을 수용、답례분위기를 망칠뿐만 아니라 바쁜 혼주(婚主)들이 정신없는것을 악용、바가지·양속임·불친절등으로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많은것이다。

일부업소는『일반손님과똑같이 대우할테니 우리집을 끝용해달라』고 예약손님을 끌정도로 성업중인데 음식량이 적거나 2그릇씩먹어야 하는 경우가잦아 답례가 되려 결례로 된는일까지 생긴다。

서울의 경우 음식점바가지가 성행하는곳은 鍾路의 J·SIK예식장주변 비롯 淸凉里 J예식장 永登浦로터리 J예식장주변등으로 갈비탕·떡만두등의 대중음식을 다른 음식점들보다 2백~3백원씩 더받고 있다。

최근 永登浦 J예식장에서 결혼식을올린 李모씨(29)의 경우 한그릇에 1천2백원인 떡만두등을 1천5백원씩 받는바람에 바가지를 썼다고 불평했으며 이들음식점은 음료수·술등을 반드시 음식점것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기도 하는데 4홉짜리 맥주1병은 1천3백원、소주 6백원、콜라등 각종음료는 1잔에 3백50원까지 받고있어 일반음식점보다 최고 2백원정도비싸다。

또 淸凉里 J예식장에서 동생혼례를 올리고 인근B회관에서 피로연을한 韓모씨(46·회사원·서울東大門區里門洞)의 경우는 계산할때 가족들의 주장과 음식점측의 계산에서 음식그릇수가 20여개나 차이가 났다。

주인에게 항의했으나『손님들이 자꾸 달라고해 그대로 내줬을뿐』이라고 대답해 어쩔수없이 지불하고 말았다는것。

鍾路의 S예식장에서 아들결혼식을 올린 李모씨(62·농업)의 경우도 마찬가지。고향인 忠州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아침 일찍 서울에온 하객들은 식사도 거른채로 피로연장소인 인근 K회관으로 갔으나 막상 식당에서 나온 갈비탕은 잡채사리만 몽둥한 분량이었다。李씨는 혼례분위기가 깨질까봐 제대로 항의도 하지 못했는데 음식을 제대로 먹을만큼 충분히 시간도 주지않아 다음 손님을 위해 일어서야만 했었다。

新村 R예식장에서 동생을 결혼시킨 吳모씨(32·회사원)도 고향이 시골인 신랑측 손님들과 함께 인근 한식당에 들었으나 자기손님이외에도 다른하객 및 팁을 더받아 누가 누군지 알수도없는 상태에서 달라는대로 계산을 했다며『바가지를 쓴것같다』고 말했다。

예식장주변의 음식점들이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것은 실상 업소에 따라서는 2중 3중으로 예약을 받아 조금늦은 손님들이 서서 기다리게 하는일도 많은데 무안해진 하객들중에는 점심을먹지않고 그대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다。

객들이 단체손님이어서 단번에 돈벌이가 좋고 한번 다녀가면 다시오지않을 것이기때문이기도 한데 좌석수가 부족한데도 손님을 마구 받다보니 비위생·불친절도 예사다。그릇이 모자라 고추가루가 묻은 그릇을 그대로 내놓거나 하이타이나 물기를 헹구어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것은 물론 조리에 쓰이는 식기를 빈그릇을 나른채로 사용해야하는 경우도있다。

바닥도 시장처럼 지저분해서 여기저기 음식찌꺼기·휴지등이 널려있고 고함소리로 아수라장이 되기 일쑤이다。

이같은 횡포가 갈수록번지고 있는것은 서울시내의 1백35개 예식장대부분이 현행법상 업소간의거리가 명시돼있지않아 예식장이 몰려있는데다 예식시간이 점심때로집중돼있는것도 원인인것으로 지적되고 있다。【宋大洙기자】

寶物38號 凝寥塔 붕괴
南原 實相寺소재
도굴꾼 所行인듯

【南原】보물제38호 實相寺證覺大師凝寥塔(응료탑·南原郡山內面立石里)이 도굴꾼에의해 하대석만남겨놓고 탑신과 탑신받침상대석 옥개석등 9점이 땅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이탑은 신라興德王3년(828) 선문사찰인 實相寺를 창건한 證覺大師의 사리를봉안한 탑으로 8각형탑신에높이가 2.4m이다。

이凝寥塔은 도괴로인해 옥개석이 25㎝가량갈라지고가장자리가 10㎝쯤 떨어져나갔으며 탑신과 상대석 등의 돌출부의 20여개소가 약간씩 손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무너진 자리가 연질토여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복원이 가능할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수사를 맡고있는 南原경찰서는 凝寥塔과 實相寺본전과의 거리가 1백50m가량떨어져있는데다가 인적이 드물어 3~4명 가량의 도굴꾼들이 15일상오 0시에서 3시사이에 도굴하려던것으로 추측하고있다。경찰은 지난12일 사찰측에서 본전인 본관전법당에 흙이 묻은 농구화 자국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한적이 있는 점등을 감안 사전에 계획된 상습도굴꾼에 의해 손괴된것으로보고 수사하고 있으나 아직 범인을 목격한 사람이나 증거물을 찾지못해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다。

한편 實相寺에서는 지난 80년2월1일에도 百丈庵 3층석탑(국보제10호)과 석등(보물제40호)이 도굴된적이 있으나 아직까지 범인을잡지못하고 있다。【鄭】

◇도굴꾼들에 의해 무참히 무너져 내린 보물제38호 응료(凝寥)탑。신라말기 고승 證覺대사의 사리가 담긴 탑으로 원래모습은 높이8m의 8각전각모양이었다。

서울西峴교회에 불
수차협박電話… 放火여부 수사

16일 하오7시25분께 서울麻浦區西橋洞379 西峴교회 목사 金景源·34에서 불이나 4층교회내부 2백40평 가운데 1백20평을 태워 1천2백여만원의 피해를 낸뒤 1시간만에 꺼졌다。

이날 불은 2층 예배실 강단아래서 일어나 교회내부로 순식간에 옮겨붙었는데 불을 처음 본 이교회 집사 孫茂源씨(40)에 의하면 예배가 끝나고 1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재경보기가 울려 달려가보니 예배실강단부근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것。

경찰은 불이 났을때 2층예배실 문이 안으로 잠겨 있었고 최근 이교회에『불놓지르겠다』는 협박전화가 왔다는 교인 朴모군(23·S대3년)의 말에 따라 방화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있다。

朴군에 의하면 5일전부터 교역자실로 하오 7시께『불을 지르겠다』는 협박전화가 수차례 걸려와 서무 裵모양(21)이 받은적이 있어 교인들 사이에도 소문이 나 있었다는 것。

경찰은 누전에 의한 화재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울러 수사중이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한때 航空機 이착륙금지
어제새벽 金浦공항에 짙은안개

17일 새벽 金浦공항의 짙은 안개로 상오9시30분까지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되었다。

이날 새벽6시30분 金浦에 도착예정이던 하와이를 떠나 KAL050호편이 金海로 회항했다가 상오10시30분 안개가 걷힌뒤 金浦에 도착한 것을 비롯 일본으로 떠나려던 KAL기 두편이 1시간씩 지연출발 되었으며 국내선은 金浦에서 釜山과 光州로 떠나려던 국내선 비행기 3편이 결항되었다。

트럭 언덕굴러 1명死亡 7명負傷

【光州】16일 하오 2시14분께 전남高興郡南陽面長潭里 마을앞 국도에서 과속으로달리던 부산7다3234호 자가용 포터트럭(운전사 林洪男·27·경남晋州市上大洞17의14)이 3m높이 언덕아래로 굴러 적재함에 타고 있던 鄭永奎씨(48·高興郡過驛面도양리)가 그자리에서 숨지고 같은 마을에 사는 柳正龍씨(37)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鄭】

트레일러·버스충돌 死亡1·負傷10여명

【光州】17일 상오11시10분께 전남光山郡松汀邑仙岩里 光州~靈光간 국도에서 부산세관기업소속 부산9바3103호 트레일러(운전사 崔海鎭·39)가 맞은편에서 오던 光州교통소속 전남5아7838호 시외버스(운전사 李文行·24)와 정면 충돌、트레일러 조수 金昌洪씨(26·釜山市海雲臺區)가 숨지고 버스승객 10여명이 부상했다。【鄭】

과속 시내버스顚覆 승객등 12명重輕傷

【釜山】17일상오9시께 西區下端洞 동산유지뒤편 洛東路에서 엄궁동을떠나 下端으로 가던 대한여객소속 釜山5자2346호 시내버스(운전사 김형우·37)가 과속으로 달리다가 오른쪽 인도의 경계석을들이받고 郭京東씨(26·釜山鎭區開琴2洞주공아파트 8동402호)등 승객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鄭】

砲彈분해하다 터져 두父子 死傷

【抱川】16일 상오11시20분께 경기抱川郡蒼水面伍佳3里 박돌준씨(59)집 마당에서 박씨와 아들 진호씨(28·상업)가 집근처에서 주워온 종류를 알수없는 포탄을 분해하다 터지는 바람에 박씨는 그자리에서 숨지고 아들진호씨는 중상을 입고 서울경희대 부속병원에 입원 가료중이다。【鄭】

"未婚 해외동포 짝 찾아줍니다"
국제結婚상담窓口 곧 開設

해외에 취업중인 미혼남녀와 국내의 처녀 총각을 짝지워 주기위한 국제결혼상담창구가 생긴다。

노동부는 17일 해외교포 및 장기체류근로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미혼자들의 결혼문제가 가장심각한 과제로 드러남에 따라 문교부와 보사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끝에 이같은 교민 짝지어주기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결혼상담 창구는 빠르면 상반기중에 설치되는데 결혼희망자들은 자신의 신상명세와결혼조건등을 창구에 접수、서신교환으로예비접촉을가진뒤모국방문형식으로맞선을보고 결혼여부를결정하게 된다。

결혼상담창구는 해외개발공사등 정부산하 취업알선기관과 해외교민회、영사관、취업알선업체 해외지사등에도 마련된다。

해외거주교민수는 현재 98개국에 1백59만8백53명(외무부통계)으로 이중 결혼기를놓친 남녀들은 미국 캐나다에 1만2천여명、서독에 1천4백여명、사우디아라비아 3백여명등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당초 계약기간을 연장、장기체류하면서 혼기를 놓치거나 현지인과 결혼、언어장벽、문화의 차이등으로 파경에 이르는 예가 많다는 것이다。

55개 보험藥品값 내달부터 引下

55개 보험약품값이 오는2월1일부터 인하된다。

이번에 인하되는 보험약품은 보사부가 지난해 12월 일반메이커나 도매상에서 의료보험적용병원등 상대로 공급하는 보험약품중 항생제 3백50가지의 실거래가 조사결과 정부가 인정하는 유통마진율 12.3%보다 낮게 기준고시가 이하로 거래되는것으로 밝혀진 11가지와 생산원가가 낮아져 메이커측에서 자진 인하하는 44가지이다。

보험약은 의료보험적용병원에서 환자치료용으로 쓰이는 약품으로 모두 3천3백12가지에 이르고 있는데 도매상의 덤핑등 일부병원에서 기준고시가이하로 거래돼 병원측이 진료비심사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빚어지고있다。

그런데 보사부는 지난81년부터 보험약가 사후관리제를 도입、고시가보다 낮게 거래되는사례가 3개이상의 대형병원에서 발견될경우 경고처분을 거쳐 수시로 값을 내리도록 하고있다。

拳銃도난사건 용의자 서울에
훔친 카세트팔려다 사라져
몽타지 작성手配

총도난사건을 수사중인 南大門경찰서는 17일 이사건용의자의 몽타지를 작성、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 남자는 지난10일 하오3시께 서울中區草洞 모 레코드가게에 찾아와 권총이 없어질때 함께 도난당한 것으로 보이는 일제카세트 10개를 팔려왔다가 주인이 거절하자 그대로 사라졌다는 것。

수배된 용의자는 35~40세가량으로 키는 1백70㎝정도였고 검은얼굴에 약간 고수머리로 갈색 점퍼와 감색바지차림의 공사장 종사원 풍이었다。

연탄가스中毒 두母子 숨져

【羅州】17일상오 7시50분께 전남羅州郡南平面 1 55 沈씨집에서 沈씨의 아들 沈俊鎬씨(23)와 沈씨(43·여)가 연탄가스에 중독、숨져있는것을 이웃주민이발견、경찰에 신고했다。【鄭】

국립 女性개발원 오는3월 發足

국립여성개발원이 오는 3월 발족된다。이 개발원은 여성의 국제협력、교육훈련과 조사연구사업및 여성인력개발 진흥등의 업무를 맡게되며 국립여성복지원과 부녀직업 보도소의 기능을 흡수、운영하게된다。

의장에 徐義玄스님
曹溪宗 의장단選擧

曹溪宗은 17일 중앙종회를 열고 의장에 徐義玄스님(大邱桐華寺주지·사진) 부의장에 朴明煥(東國학원감사) 尹密耘스님(서울 奉恩寺주지)을 선출했다。종회의장단의 임기만료로 실시된 이날 선거는 2차투표까지 갔다가 前의장 徐蘭蓀스님이 사퇴함으로써 義玄스님을 만장일치(재적의원35명)로 뽑은 것이다。

建國大 총장에 權寧贊교수 승인

문교부는 17일 建國大총장에 權寧贊교수(55·사진·政治學)의 취임을 승인했다。

權교수는 오는 2월28일 임기가 끝나는 趙一文총장의 후임으로 새로 선출된 權교수는 서울大문리대를 졸업、建大에서 정치학박사를 받고 62년이후 建大교수로 재직해 왔다。

문교부는 이날 또 仁濟의 대학장에 全鍾暉박사(醫學)의 연임도 승인했다。

제철만난 겨울낚시
휴일 江陵鏡浦湖에 3천여명몰려

【江陵】휴일인 16일 강원도 江陵鏡浦호수에 서울등 각지에서 3천여명의 강태공들이 몰려들어 鏡浦호가 생긴이래 최대의 낚시인파를 기록했다。

鏡浦호수는 지난7일부터 39만6천㎡에 이르는 광활한 호수가 기온이 영하6~8도로 뚝떨어지면서 얼음이 얼기시작해 15㎝두께의 빙판이 된데다 마침 일요일인 이날 기온이 낚시하기에 적합하게 포근하자 서울에서 2천여명을 비롯、3천여명의 강태공들이 낚시를 즐겼다。

더우기 3천여명의 낚시광들 외에 江陵등지에서 모여든 1천여명의 스케이터들까지 붐벼 鏡浦호수는 온통 인파로 뒤덮여 장관을 이루었다。

특히 이번 낚시는 예년에 비해 가족단위의 낚시꾼들이 많이 눈에 띄었으며 鏡浦호수의 빙판에는 줄잡아 9만여개의 낚시구멍이 2~3m간격으로 뚫려있었다。【鄭】

도서관 人生
6월停年 正讀도서관장 崔昌均씨
"文化의 産室 20년 외길에 긍지"

人口의 북적거림、마천루의 등장、자동차의 증가숫자로 따진다면 서울은 세계의 어느 대도시에도 크게 꿀릴게 없다。

그러나 도서관에 관해서는 사정이 정반대다。인구 8백만의 도시에 시립도서관은 달랑 11개소 뿐。東京에는 3백여개소의 도서관이 있다。

자존심 상하는일이 되겠지만 江南으로 옮겨간 서울 도심의 중·고교자리와 건물이 공공도서관으로서는 최적지가 아닌가 싶더니 대개가 재벌들의 수중으로 들어가 고층빌딩을 지을 궁리가 한창인판。그나마 옛 京畿고교자리가 正讀도서관으로 남게된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오는6월로 정년을맞는 正讀도서관장 崔昌均씨(61·사진)는 이 가날픈 도서관文化를 지켜나가는데 한 평생을 보냈다。20년전 南大門도서관장으로 시작해서、南山 東大門 永登浦 正讀등 4개시립도서관의 창립산파역겸 초대관장을 맡아왔다。

책을 시민에게 접근시키기 위해 그는 正讀도서관의 14만여권 장서를 모두 개가식으로 열어놓았다。또 도서관이 대입수험생들의 시험공부 장소뿐 아니라 성인들의 평생교육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열람실안에「사회인석」을 별도로 만들어 놓기도 하였다。

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있는 노인들의 모습은 공원이나 육교밑에 모여 여생의 시간을 처리하지 못해 권태스러워하는 노인들에비하면 훨씬 여유가 있어보였다。

『많은시민들이 도서관에와서 서가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책의혼을 불러일으켜、문화의 밑거름으로 삼았으면 하는것이 유일한 바람이다』고 崔관장은 말했다。

외줄기 한길에서 살은 사람들에게서 가끔 볼수있는 고립감과 깐깐한 정체감、소외감을 그에게서는 읽어낼수없는것은 책과 도서관에대한 그의 긍지때문일 것이다。

이제 정년을 앞두고 책과 도서관에 바친 도서관인생 한 평생을『뒤돌아보는 심정으로』관조하고 있다는 그의표정에는『책을읽지않는 민족은 발전하지 못한다』는경귀가 그려져있지 싶었다。【薛熙灌기자】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알 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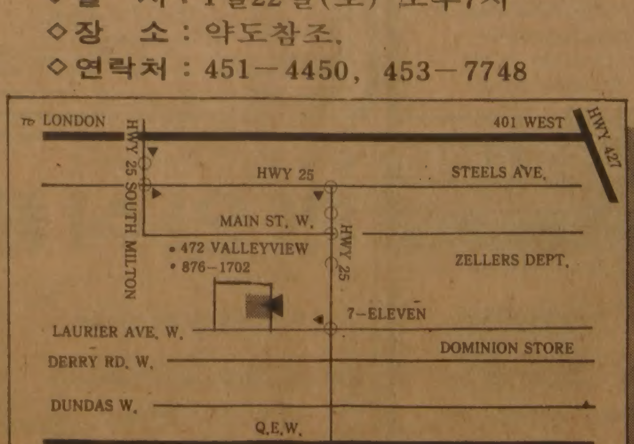
종중일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임술년을 보내고 희망에찬 복된해 계해년을 맞이하여 일가여러분의 가내에 만복이 깃드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종친회는 회원들의 단합으로 일취월장 상호부조하며 낯서른 이민생활에도 외로움을 잊으며 재미있게 모임을 거듭하고 있음은 오로지 회원여러분의 조령숭앙과 일가단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삼감사드립니다.

금번 새해의 첫 월례유사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아직 동참하지 못하고 계신 많은 일가회원으로부터 여러번 문의전갈 또는 전화연락을 받았읍니다마는 일일이 통지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지면을 빌어 일괄안내 드립니다.
부디 소만합석하옵기 학수고대합니다.

◇일 시: 1월22일(토) 오후7시
◇장 소: 약도참조.
◇연락처: 451-4450, 453-7748



재카나다경주이씨종친회
회장 이 승 영

"1勝에 1年 걸렸다"

籠球選手權

保證基金 10連敗 딛고 감격의 첫勝利

14번타이 7번逆轉… 第一銀 넘어뜨려

外換銀行과 韓國化粧品이 8강이 겨루는 결선에 선착했으며 信用保證基金이 창단 1년간 10連敗끝에 첫승리를 거두었다.

17일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제37회 전국남녀종합농구선수권대회 3일째 여자B조에서 信用保證基金은 第一銀行과 14번의 타이, 7번의 역전을 거듭하는 대혼전 끝에 경기종료 피스톨소리와 함께 金銀淑이 슛을 성공시켜 第一銀行을 66-64 한골차로 제압, 작년1월14일 팀을 창단한후 첫개가를 올렸다.

여자부 A조에서 外換銀行은 서울信託銀行을 63-60으로꺾고 韓國化粧品과함께 나란히 1승을기록, 결선에 올랐고 서울信託은 2패로 탈락했다.

한편 남자부리그에서 韓國銀行은 吳東根 崔龍默의활약으로 産業銀行을 70-61로제압, 1승1패를 기록했다.

保證基金과 第一銀의 대전은 초반부터 난전이었다. 캐리어가 앞서는 第一銀行은 李明姬의 외곽슛으로, 保證基金은 金銀淑 趙聖淑의 슛으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인끝에 第一銀行이 전반을 42-38로 앞섰다.

후반서도 第一銀行은 李明姬의 외곽슛과 元光子의 골밑분전으로 앞서나갔으나 保證基金 金敬愛 金惠卿의 슛이 잇따라 터지면서 추격을당해 金銀淑의 슛으로 56-56 타이를 허용, 양팀은 또다시 일진일퇴를 거듭했다.

保證基金은 金銀淑이 경기종료종성과함께 날린슛이 적중되어 66-64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제3일전적

▲여자B조

보증기금 66 (28-22 / 38-42) 64 제일은행
(1승1패) (1패)

외환은행 63 (26-26 / 37-34) 60 서울신탁
(1승) (2패)

▲남자리그

한국은행 70 (37-27 / 33-34) 61 산업은행
(1승1패) (2패)

◇제2일전적(16일)

▲남자부리그

연세대 101-85 국민대
(2승) (2패)

현대 98-69 산업은행
(1승) (1패)

▲여자C조

동방생명 61-50 조흥은행
(1승) (1패)

코오롱 46-42 선경
(1승) (1패)

◇朴信子감독 어린아이처럼 "엉엉" 朴信子감독을 울린「1년만의 첫승리」。保證基金이 第一銀行를 66-64, 한골차로 제치고 승리한 순간 朴信子감독이 金銀淑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있다。保證基金은 지난해 1월 팀창단후 10連敗끝에 1승을 올렸다。

李貞澤 "최우수" 영광

프로복싱 新人王11명 탄생

프로복싱82년도 11체급 신인왕이 탄생했다.

李貞澤(상원체)은 16일 문화체육관에서 폐막된 신인왕전주니어·페더급 결승전에서 발군의 테크닉과 파괴력으로 張相仁(남성)을 2회 2분27초만에 KO로 물리쳐 신인왕 타이틀과 함께 최우수선수로 선발, 50만원의 격려금을 받았다.

주니어·플라이급의 金政賢(주승)은 張昌永(극동서부)에 판정승을 거두고 우수신인왕으로 선발되었으며 라이트급 신인왕 金鎭浩(극동중앙)는 감투상을받았다.

이날 주니어·페더급 결승전서 李貞澤은 초반부터 張相仁을몰아붙이다가 1라운드 종반 특기인 라이트훅카운터를 턱에 명중시켜 첫다운을 빼앗았고 2라운드에 들어서도 張을 맹공, 라이트훅 결정타로 두번째 다운을 탈취했다.

李는 이번대회 5게임서 3KO승을 기록했다.

◇결승전적

▲J·플라이 金政賢(주승) 판정 張昌永(극동서부)
▲플라이 金熙石(상원) 판정 孫鍾國(대원공작)
▲J·밴텀 金熙鳳(주승) 판정 盧建鎬(극동중앙)
▲밴텀 金容雨(현대칼라) 판정 高鐵男(현대)
▲J·페더 李貞澤(상원) 2회2분27초 KO 張相仁(남성)
▲페더 尹哲熙(동원) 판정 金成洙(원진)
▲J·라이트 金炳俊(롯데) 판정 尹東烈(동아)
▲라이트 金鎭浩(극동중앙) 판정 朴永在(광부)
▲J·웰터 朴朗求(와룡) 판정 徐炯沃(동아)
▲웰터 宋和永(덕흥) 실격 李相鉉(동신)
▲J·미들 金哲鉉(극동) 5회2분37초 KO 金辰坤(신도)

◇프로복싱 최우수 新人王 李貞澤。

한국등 5개國참가 印 네루골드컵蹴球

【매내마=聯】한국 스위스 이란 케냐등 5개국이 14일현재 印度에서 오는 3월11일 개최되는 제2회 네루골드컵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신청을 해왔다고 印度의 UNI통신이 보도했다.

UNI통신은 이들 5개국이 이번대회에 국가대표팀을 파견하겠다고 全印度축구연맹(AIFF)에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AIFF는 西獨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칠레등 수개국의 참가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蘇등10國참가 印尼 대통령컵복싱

【자카르타=聯】한국과蘇聯등 10개국이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자카르타에서벌어지는 제6회 인도네시아 대통령컵 국제복싱대회 참가를 통고해 왔다고 인도네시아 권투협회가 15일 발표했다.

美프로풋볼 두리그 決勝진출팀 가려내

【뉴욕AP聯】뉴욕·제츠-마이애미·돌핀즈가 미국프로풋볼 아메리칸·콘퍼런스(AFC) 챔피언전에서, 워싱턴·레드스킨즈-댈라스·카우보이즈가 내셔널·콘퍼런스(NFC) 챔피언전서 각각 격돌한다.

15·16일(이하 현지시간) 이틀간 워싱턴등 4개도시에서 벌어진 美프로풋볼 플레이오프 준결승전서 뉴욕·제츠는 LA·레이더즈를 17-14로, 마이애미·돌핀즈는 샌디에이고·차저스를 34-13으로 격파하고 AFC 결승전에 진출, 23일 오렌지볼 돌핀즈의 구장에서 챔피언결정전을 벌이게됐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南海에「排球 바람」

섬마을 二東中선수단 첫創團

「키다리들 強訓」이 熱氣불어

體格좋아 有望株배출 기대

동네 유지들 신바람 뒷바라지 다짐

〈국내〉 〈스포츠話題〉

배구불모지 南海에 처음으로 배구팀이 탄생된다. 남녀공학인 南海二東中(교장金丙圭)은 이미 남학생15명, 여학생 10명을모아 金이현체육교사의 지도로 배구훈련을 시작했다.

二東中배구팀창단의 결정적인 계기는 대한배구협회의 여중고 장신유망주 14명의강화훈련 덕택이다.

지난7일부터 9일간 南海邑 남해군민회관에서 계속된 장신자훈련은 조용한 南海를 들뜨게 만들었다.

키큰여중고 선수들이 군민회관 배구코트에서 뒹굴면서 땀흘리는 모습은 南海읍민들에게 볼만한 구경거리였다.

南海읍민들의 열기는 인근 二東中에까지 번져 金丙圭교장이 배구팀창단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장신자훈련이 시작된 이튿날부터 20여명의 二東中어린이들도 코트에서 함께 땀을 흘렸다.

二東中 배구팀 창단소식이 알려지자 南海유지들도 후원회를 조직해 뒷바라지 하겠다고 나섰다. 전 경남배구협회회장 車鎭洪씨도 후원회원 모집에 앞장섰다.

청년회의소 南海지부 金賢鎔부회장은 30대인사들로 후원회를 조직하겠다며 二東中어린이외에 다른학교의 장신자들을 찾아 나섰다.

장신자 훈련단 石泰煥씨(대한배구협회강화위원)와 權元植씨(馬山제일여고감독) 尹銀鎭씨(전 경북여상감독)등도 장신자 훈련 틈틈이 二東中어린이들의 기초기술지도에 열의를 쏟았으며 훈련이 끝난후 네트와 배구공을 선물로 남겨주기도 했다. 石泰煥씨는『섬이라서 그런지 남해 어린이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체격이 좋고 심폐기능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南海출신 배구인으로는 車鎭洪전회장외에 李甲수씨(카타르 플럼팀) 高相一씨(쿠웨이트플럼팀) 金吉泰씨(전 경북사대부고)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한 바있다.

이들은 인근 부산등지서 배구를 했는데 앞으로 南海에 배구팀이 생김으로써 체력이 좋은 유망주들이 많이 배출될것으로 보여 큰기대를모으고있다.

【南海=金仁鎬기자】

〈海外〉

작년 1마일競技서 4번이나 기록 更新

「세계新 製造機」 탭女人

5천·1만m 기록보유 AP"최우수"선정

AP통신의 「82년도 최우수여자선수」로 선정된 메리·데커·탭(24)은 미국여자육상 가장 뛰어난 장거리선수로각광받고있다.

선수경력 11년의 탭은 지난해 1마일레이스서 세계기록을 4번이나경신하며 현재 5천m와 1만m의 세계기록을 갖고있다.

또 8백, 1천5백, 3천m에서는 미국 1위에 랭크돼 있다. 탭은 82년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경주는 3천m 미국최고기록을낸 7월의 오슬로(노르웨이) 대회였다고 회고한다.

『만약 경쟁자가 있었다면 보다 좋은 기록을 냈을수 있었을것이다. 독주를 한다는것은 더욱 힘든 일』이라고 말한다.

마라토너인 그의남편 론은 『7월 오리건州 유진에서벌어졌던 1만m경주가 더 훌륭했다』고 주장하지만 탭은 『1만m에서는 거의 같은페이스로 달렸다. 그건 경주가 아니었다. 조깅 같았다』며 3천m가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금년에 탭은 8월7일부터 14일까지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제1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여자부문 최장거리인 1천5백m와 3천m에 참가, 우승을 노리고 있다. 1천5백m와 3천m는 84년 LA올림픽의 여자최장거리종목으로 탭도 참가할 예정이다.

탭은 『올림픽에서 가장 큰 메달을 기대하는것은 3천m 이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5천m와 1만m우승을 위해서는 앞으로 4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올림픽관계자들은 LA올림픽에 포함돼 있지않은 여자 5천m와 1만m를 88년 서울올림픽에 추가될지 모른다는 전해를 보이고있다.

◇84년 LA올림픽여자육상서 1천5백m와 3천m우승을노리고있는 메리·데커·탭.

張吉山 〈1642〉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02)

『사내 자식이 걸핏하면 울기만 한느냐…』

이경순은 아기를 다시 어미에게로 내어 주기가 못내 섭섭한지 몇번 더 달래 보려 하였다.

『금자동아, 은자동아』

좌우로 흔들며 어르다가 경순은 체모에 맞지않게 흉을 갈을 떨며 두 눈을 크게 부릅떠 보였다. 아기는 문득 울음을 그치고 멀뚱하니 바라보다가 얼굴을 돌리며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묘옥은 그를 부자의 꼴이 우스워서 입을 가리며 웃음을 참았다. 이경순은 어찌할바를 모르다가 그만 어미에게로 아기를 다시 내밀어 주었다.

『울려거든 아예 천지가 떠나가도록 울든지…』

경순은 아기를 바라보며 살가운 표정을 짓우지는 못하고서 불평하였고, 묘옥은 입을 비쭉해 보였다.

『여문아 느이 아부지가 공연히 우리한테 시샘이나서 저러신단』

그에게는 연분이가 늦자식이자 유일한 한점 혈육이라 잠시도 곁에두고 보지않으면 애가닳아 하였다.

『점심 상 들일까요?』

묘옥이 아이를 안고서 토닥이면서 물었다. 경순은 다시 곰방대를 물고 빼끔거리면서 중얼거렸다.

『으응…그런데 온둑이 면칠이든가…』

『초 이틀이어요』

『가만있자…전쇠이가 어제 돌아오기루 되었든가?』

지난달 스무 날 께에 나간 전쇠이가 솔부리에서 양주를 거쳐 문산포로 오게 되어 있었던 터였다.

『그래요, 초하루에는 뱃사람들과 솔도 사람들이 온다며 짝 돌아와야 한댔어요』

『그쪽에서두 아무도 안왔지?』

『뱃사람들이야 물길로 오니까 짝 정한 날짜를 지킬수는 없겠지요』

하면서 묘옥은 고개를 주억거리며 손가락으로 짚어보다가 얼른 손뼉을 쳤다.

『에그 내 정신 좀 보아. 할머니 대상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묘옥이 할머니라 일컫는자란 물론 여문이쪽 할멈으로 따져서 가족과같았던 장쇠의 노모를 말하는 것이었고, 큰 삼촌은 전쇠이, 작은 삼촌은 장쇠를 말하는 것이었다.

『벌써 그렇게 되었나?』

경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묘옥은 잠든 아기를 살며시 안아 올리며 말을 꺼냈다.

『저어…이번에 잔은 살림을 제주로 하여 볼까 봐요? 이라두 한번 어떨까요?』

『그래 솔파에서 고생만 하시다가 겨우 이곳에 와서 안돈이 되시고는 곧 돌아가셨으니 장사가 얼마나 속으로 한스러웠는가. 쌀섬이라도 내어 굿 한판 해주어야지』

묘옥은 옷섶을 지었다.

『아이 언제나 제 말에 끄떡이시지만 마시구요. 쉬운 하지 제가 하자는대로만 하실 작정이세요?』

『일자 하는일에 조리가 닿지 않는 적이 어디 있는가』

『그럼 앞우 사람을 청하실라우?』

『물론 그래야 굿을 하지. 악바라구 이번에 한번 모여야겠다 벼르고만 있었거든. 좋은 굿판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국수 삶아 잔치 벌이기요, 윷놀이도 벌고 환자 타기 아닌가. 이제 동무들이 모여들게 되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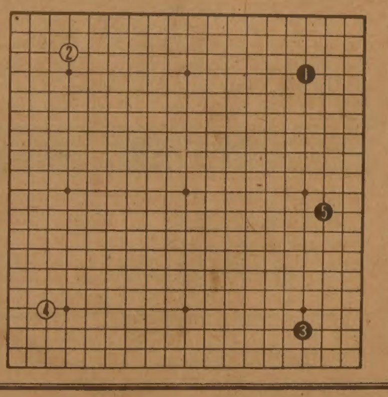
묘옥은 공연히 신바람이 났다. 그 여자에게는 아직도 사당 시절의 신명이 몸의 구석구석까지 깊이 배어 있었다.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 훨씬저렴한 가격
● 빠른 써비스
책종류 환영함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제14기 名人战 挑战者决定리그

第8局 第1譜 1~5 (각5시간·덤5집반)

白(6段) 徐能旭〈1敗〉
黑(7段) 徐奉洙〈1勝〉



「大徐」「小徐」의 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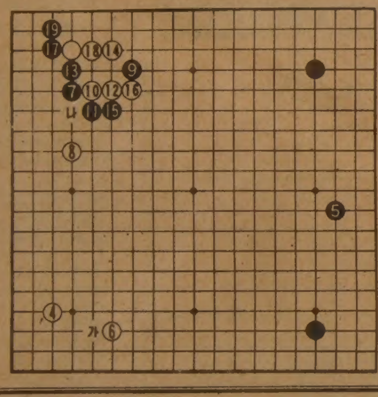
徐7단에 있어 82년은 최악의 해였다. 曺薰鉉9단에게 타이틀을 모두 빼앗기고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帝王位결승전마저 덧없이 패퇴했다. 그제까지 둘도없는 라이벌로 曺9단하의 팬들을 열광시키며 부동의 위치를 고수했던 그가 일순에 무관의 야인으로 전락한것이다. 하기야 曺9단에게는 6대4 내지 7대3으로 항상 뒤져온것이 사실이지만 그런대로 아기자기한 열전을 벌여왔는데 이제 되면 격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져 자칫, 追及不能의 처지로 밀려나지 않나 염려하는 팬도 적지않다. 비록 그러나 아직도 曺9단에 정면으로 대결할 상대는 徐7단밖에 없는 형편이니 명실 후진들이 성장할 때까지 대다수 팬들을 위하여 曺王國 공략의 「重任」을 떠맡아야하겠고 그 자신을 위해서도 재기할 필요가 절대로 있는 것이다. 分然히 승부의 세계는 현실적인것, 우승할 때는 어쩌면 못하겠으나 패전이 계속될 경우 정신자세를 재정비해야 된다고 극히 평범한 말로 격려를 대신해 두고싶다. 다행히 名人戰에서는 첫판을 康永夏7단에 낙승하여 순탄한 출발이다. 黑1, 3이면 中共포석을 연상하는것이 보통인데 과연, 白4때 徐7단은 뭔가 잠시 망설이다가 黑5로 놓은 中共式을 택했다.【一丸】

제14기 名人战 挑战者决定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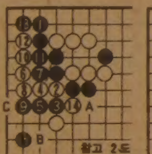
第8局 第2譜 4~19 (각5시간·덤5집반)

白(6段) 徐能旭〈1敗〉
黑(7段) 徐奉洙〈1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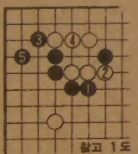
徐6단은 첫판을 姜勳4단에 패하여 사기가 꺾였으나 그럭한 패기는 여전히 만만치 않아 벼이 다부지는 못할것 같다. 徐7단이 黑5로 中共식을 택한것은 하나의 취향으로 보아진다. 왜냐면 좌하귀에 白4가 놓였을 경우 黑5의 中共식은 白6의 귀걸침이 너무도 좋기 때문이다. 따라서 黑5는 「간」의 곳에 걸치는것이 보통식인데 徐7단은 그것을 뻔히 알면서 굳이 中共식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黑7에 대해 白8로 협공하여 19까지는 정석이다. 다만 본보의 형 외에 참고 1도 黑15때 가지는 변화도 몇가지 있으나 黑15로 두기가 그중 점으로 하는 참고 1도는 전과 대동소이하다. 참고 2도 黑19이 후 白이 처럼 되면 黑15까지에서 白[A]의 축이 되지 않기때문에 날파다. 또 수순중 黑15를 [B]에 튀는것은 白[C]가 들어서 귀쪽 수상전에 黑이 지게 된다.【一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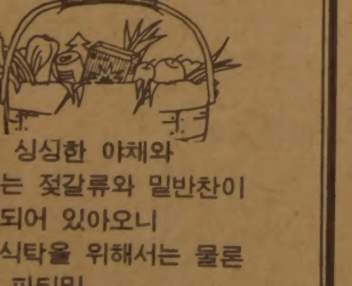
黑、趣向의 中共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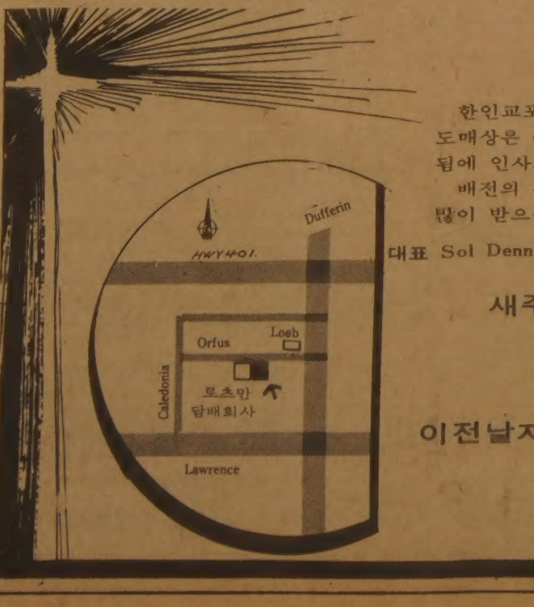


참고 2도



참고 1도

한국식품이라면!
제일식품

항상 싱싱한 야채와
맛있는 젓갈류와 밑반찬이
준비되어 있아오니
가족식탁을 위해서는 물론
각종 파티및
잔치상을 차리실 때는
언제나 제일식품을
찾아주세요.
뒷편에 넓은 주차장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아리랑 식당옆〉
532-1054

도매상 Cash & Carry
DOMINION SMALLWARES


확장이전공고
한인교포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저희 도매상은 아래의 장소로 확장이전하게 됨에 인사드립니다.
배전의 성원을 바라오며 새해에 복많이 받으십시요.
대표 Sol Dennis 쎄일즈·매니저 김근래 올림.
새주소 : 47A Orfus Rd
(도매상 Loeb근처)
☎ : 789－7214～5
(종전과 같음)
이전날자 : 1983년1월4일(화)

신년인사
회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계해년을 맞이하여 회원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에 신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본 보라매회도 금년에는 더욱 깊은 회원간의 친목관계를 유지할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새해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보라매
회 장 : 이태근
연락처 : 정해문
961－2961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씰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물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693 Bloor St. W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 레스토랑
각종한식·중국식·양식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스카보로) 498—1300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한인 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링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 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Enco Mechanical 냉동기·히팅(전기·개스) 수리·설비.
Lic. Mechanic. Engineering Technician
전화: 769—5956 김명근.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928—3335(B). 532—9581(R)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4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 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핀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Minit—tune Gain gas station
We do all repairs ◉334 Dundas St. E. Mississauga
전화: (B)273—3920 (R)273—9821 이태경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광고문의 533—2361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 — 스카보로
◉1974년도 욕대학 경제과 전공 ◉1976년도 욕대학 경영관리학 회계학전공 ◉현 캐나다최대의 컴퓨터회사의 어카운터 메니져 ◉소규모사업체 회계사무 6년경험
44 Gil Roy Dr. Scar. Ont. M1P 1J9
전화 : 752—9332(R) (오후 5시30분이후)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여자 스토아헬퍼 구함
경험자 우대, 다운타운 지역.
전화 : 368-8834 (오전 11시반 이후)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구함.
토·일요일은 자유. 월: $400.-
전화 : 499-5996 (저녁 6시이후) Mrs. 김

일본요리사 / 한국요리사 구함.
전화 : 923-3060 GRANADA 음식점

출퇴근하실 베비씨터 구함.
스카보로 지역
전화: 266-6355

토·일요일 주말헬퍼 구함.(Mac's Milk Store)
Eglinton East & Laird Dr.
전화 : 421-1089

Tavern에서 일하실 경험있는
젊은 웨이트레스 구함.
전화 : 491-9058

출퇴근하시며 베이비씨터 하실 분.
전화: 665-9585 Mr. Lee(오후5시30분 이후)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내보신 분만이
그 효과를 압니다.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광고국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보다 효과있고 신속한 광고로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광고에 관한 문제라면 언제든지 저의 광고국으로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협조해 드리겠읍니다.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오후 5시반)
토요일(오전 10시~오후 4시)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구 직

템프로리 메니저자리 원함.
◉유경험자.
전화: 762-7004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	224-2491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헌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숭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실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동불토요학교, ◉757-7828(김지현)
지원자격: 5학년~10학년, 영어·수학·한국어 ◉UT재학생과 졸업생 장소: Midland Ave. Collegiate Ins.(에그린톤×미드랜드)

바이올린 레슨.
푸로페션얼. 개인지도. All Level.
전화: 233-4200 Mr. Wong

매 매

Van Truck — 77년도 Dodge 흰색
6만5천 Km. Excellent Condition
전화 : 533-2363 Mrs. 김

Van트럭 82년도 GMC 회색
3,000Km-실내장식 완비
전화: 749-9687 Mr. 조

'81년도 Capri 4기통 AM, FM카세트.
Automatic 추렌스미션. Power 브레이크. 가격: $5,500
전화 : 536-8262(6시 이후)

스카보로에 있는 Bakery 매매함.
경험없어도 할수 있음.
주매상 : $3,500 아스킹 : $59,000
가격에 모든 도구 포함돼 있음.
전화 : 881-5186

Oakville 버라이어티 가게 매매.
아스킹: $60,000(스탁 포함)
전화: 844-2950 로레인 또는 버니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아스킹: 2만+스탁. 렌트: 월 $625(가게와 2층살림집)
1054 Gerrard St. E. 전화 : 469-3708

당구장 매매함.
비데오머신들과 스넥바 있음. 좋은 Plaza내.
전화 : 531-9216 (오후5시-밤12시) GEORGE

그로서리·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아스킹: 3만6천+스탁.
전화: 820-7259

에드몬톤에 있는 주유소 급매.
정비공장 가스스테이숀, 자동차 Part Shop, 토잉설비
Asking: $125,000(설비+Part+토잉트럭 완전포함)
연 Net Income: 7만불
연락처: 1-403-475-9613, 1-403-475-1631 Mr. 박
(Collect Call도 무방함)

◉년매상: $107,000 Net Net Plus.
11개스토아 플라자내. 아스킹: $1,200,000.25%다운.

◉1,3에이커. 따로 떨어진 두빌딩.
빌딩안에 Becker's 스토아와 Self Serve 개스 스테이션이 있음. 아스킹: $380,000.년매상: $34,000.Net Net.
◉Yonge Street에
금방 완성된 플라자. 아스킹: $5,000,000.10% Return.
763-5555 Doris Burda
Cholkan Real Estate Ltd.

아이스크림 캐비넷 파실분 연락 바랍니다.
8Ft 나 6Ft. 쓰던것.
전화: 920-0539

아파트를 구하고 계십니까?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여자 룸메이트 구함. 1 Bed Rm. 아파트
Finch & Bathurst
전화 : 630-7594(저녁 6시이후)

3베드룸이나 1베드룸 타운하우스 렌트
즉시 입주가능.
전화: 532-9581(저녁7시 이후)

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사무실 렌트.
연락처: 535-6004, 535-8801

미도파2층 렌트.(현재 입주 가능) ◉사무실과 살림 동시에 할 수 있음. ◉1Bed Rm. 화장실·부엌·사무실2개.
전화: 536-1692

1Bed Rm. 렌트(여성에 한함)
월: $130. 위치: Lawrence & Midland
전화: 759-3794 Mrs. 리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767-1702(6시이후)(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1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백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서)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638-6919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246-4384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비·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HOME COMPUTERS
▲판매및 수리 ▲파트타임 비지네스에 관심있으신분 전화바람. 전화 : 239-1698 오후6시~9시 (MR. 이)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퍼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W.
535·9541 MR.김

〈식품 제조업체 탄생〉

교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작년가을 일차 광고로써 제 종합식품에 대해 인사말씀을 드렸으나 몇가지 기계 결함이 생겨 제품생산을 해드리지 못함에 심심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 온테리안 발효공업에서는 정상가동을 하게되여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희 종합식품은 미생물에서부터 콩나물까지 대략 30여종을 생산할 예정이며, 또한 대기업체에서도 갖추기 어려운 약 10만달라에 해당하는 완벽한 연구시설 장비를 토론토대학 Buchnea 박사로부터 이미 기증받아, 더욱 자랑스런 마음으로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읍니다.

또한 저희들은 평생을 연구에만 종사했고 그동안 연구실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저희들도 연구실에서 수많은 세월 헤일수 없는 시행착오와 좌절을 밑바탕으로 만족한 성공을 체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교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우수하고 부담없는 제품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시행착오로써 이른바 풀어진다는 떡과 곰보진 두부를 사용하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리오며 이제는 우수한 제품이 여러 한국식품점에서 판매중이오니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며, 교민 여러분께 직접 저의제품이 어떻게 다른가를 단한번 사용하셔서 확인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발효공업에서는 특출한 진짜 육수제조기술에 대하여 특허수속을 밟고 있사오며, 일차적으로 아래와 같은 제품을 생산함을 교민께 알려 드리오니 많은 애용및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표
최 재 경 올림

1. 떡국용 흰떡 : (A) 특징-쫄깃 쫄깃한 것.
(B) 노인과 위장이 편치 않으신 분을 위한 쉽게 무르고 부드러운 것. 똑같이 육수가 첨부되어 있읍니다.

2. 가래떡과 떡볶기 : 아무리 얼리거나 굳어 있을지라도 얼음이 녹은 후 따끈한 물에 30분만 포장을 뜯지 말고 담가 두시면 즉시 뜨거운 떡으로 변합니다.
※ 매주 토요일 뜨거운 떡을 식품점에 배달합니다.

3. 두 부 : (간수없는 두부) 인류사상 최초의 걸작품!!
A.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및 캐나다에서는 본사만이 순수한 간수를 사용하는 독특한 향취 또는 풍미와 맛이 특이하며 두부자체가 여러분께 답변해 드리고 있으며, 본 두부는 제조과정 자체가 이른바 회가루 두부와는 전연 다르며 이미 교민들께 우수한 평을 받고 있으며 캐나다 사람들께 폭발적인 평을 받고 있읍니다. 본 두부는 다목적용입니다.
B. 흔히 말하는 회가루 두부도 일부 원하시는 교민을 위해 생산합니다. 본 두부는 매끄럽고 매우 부드럽지만 두부 (A)와는 비교할 수가 없고 향취와 맛이 없읍니다.
C. 간수 없고 어떠한 약품도 쓰지 않은 두부 역시 캐나다 사람들께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4. 순 대 : (A) 피를 약간 사용한 한국토종순대로서 차게 식은 후라도 색갈이 곱고 자연스러운 맛과 구수한 향취가 특출하고,
(B) 피를 싫어하는 분을 위해 순 고기만을 사용했으며, 맛과 구수한 것은 같으며 색갈이 더 곱습니다.
(C) 채식가를 위한 순수한 식물성 순대, 역시 우수한 맛과 풍미가 있읍니다.
※ 순대는 매주 토요일 뜨거운 것을 배달하오니 식품점에서 구하실 수 있읍니다.

5. 식물성 쏘세지 : 역시 캐나다 사람들께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6. 콩 나 물 : 순수한 자연식으로 색갈과 맛이 전연 틀립니다. 색은 아주 옅은 우유색이고 맛이 특이하게 구수할뿐더러 저장기간이 더 깁니다.

7. 떡 쌀 가 루 : 가장 곱다는 정평을 받고 있읍니다.

8. 찹쌀인절미 : 매주 토요일 뜨거운 떡을 식품점에 배달하며, 본 떡의 특징은 얼거나 굳을 경우 포장을 뜯지 마시고 뜨거운 물에 담가 두시면 말랑말랑한 뜨거운 떡으로 변합니다.

9. 우 동 : 원형과 타원형 두가지가 있으며 가마보꾸와 아부라기가 첨부되어 있읍니다.(근일 출하예정)

10. 짜 장 면 : 역시 원형 있으며 푸짐한 짜장습이 첨부되어있고 맛과 향취가 뛰어납니다.

11. 옥 수 수 차 : 엽차식으로 포장되어 있고 단 한봉지에 4 liter 이상을 추출해낼수 있고 찌꺼기는 엽차 봉지채 건져내면 됩니다.

12. Meat Activator : 불고기 부드러워지는 것으로 아무리 쇠심줄도 30분만에 부드러워지며 말린 간장을 비롯하여 양념이 포함되어 있고, 주성분은 살아있는 싱싱한 효소입니다.

13. 장 류 : ◆재래식 된장: 너무 맛이 좋아서 주부께서 화학조미료가 필요없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금년 늦여름 출하예정.
◆왜된장: 금년 말경 출하예정.
◆생 짜장: 금년 늦여름 출하예정으로 맛이 대단히 특출합니다.
◆한국식 왜간장: 금년 봄 출하예정.
◆일본식(기고망) 간장: 명년봄 출하예정.

14. 중국식 찐만두 : 너무 맛이 특이하여 중국인도 따를수 없다는 평이며 돼지냄새가 안나고 고기가 부드러운게 특징입니다.

15. 떡국용 또는 군만두용 : 언채로 삶아도 터지지 않으며 돼지고기 냄새가 안나고 고기가 부드럽습니다.

16. 가마보꾸(생선묵) : A) 오색찬란한 여러가지 색이고 재래식이 아닌 순대나 쏘세지 형태로 설탕을 약간 줄였고 맛은 희한합니다.
B) 얄팍한 튀김 생선묵

17. 엿기름가루및 고추장용 메주가루 (금년 늦봄 출하예정)및 미생물 효소를 비롯하여 30여종.

18. 순 모밀냉면 : 쫄깃쫄깃하고 순 육수가 첨가되어 있음.

본 제품은 서울식품및 한밭식품을 비롯하여 여러식품점에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읍니다.

※지방주문 환영합니다. (B) 762-6153
(R) 593-9458

ONTARIAN FERMENTATION (온타리안발효공업) CO.